

YONSEI UNIVERSITY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안내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I

2025학년도 전형요약 및 주요 변경사항

04

II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06

서류평가

08

1. 서류평가 절차 및 구성
2. 서류평가 요소 및 항목
3. 자연계열 교과이수 권장과목
4. 학교생활기록부

면접평가

20

1. 면접평가 안내
2. 면접평가 절차
3. 제시문 기반 면접
4. 면접 기출 문제

III

연세대학교의 신설학과 및 계약학과 소개

24

IV

선배가 전하는 합격이야기

30

V

학생부종합전형 결과

38

캠퍼스맵

44

2025학년도 전형요약 및 주요 변경사항

1. 2025학년도 수시모집 전형별 모집인원(요약)

수시모집(정원 내)				수시모집(정원 외)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특기자전형	고른기회전형
추천형 486(25)	활동우수형 632(52) 국제형 256 기회균형 192(5)	논술전형 339(16)	국제인재 120 체육인재 38	특수교육대상자 13
486(25)	1,080(57)	339(16)	158	13
학생부 위주		논술 위주	실기/실적 위주	학생부 위주

- ※ ‘()’ 안 인원은 계약학과로 정원 외 별도 모집인원임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은 해당 모집 요강 확인
 ※ 정시모집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2024.9.2.(월)에 발표 예정인 정시모집 요강 확인

2. 수시모집 전형별 최저학력기준 적용 여부

최저학력기준	적용	미적용
	• 학생부교과전형[추천형] •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 • 학생부종합전형[국제형(국내고)] • 특기자전형[체육인재]	• 학생부종합전형[국제형(해외고/검정고시)] • 학생부종합전형[기회균형] • 논술전형 • 특기자전형[국제인재] • 고른기회전형[특수교육대상자]

3. 2025학년도 수시모집 전형별 중복지원 안내

- ▶ 지원자격을 만족할 경우 학생부위주전형(교과 또는 종합), 논술전형, 특기자전형, 고른기회전형 간의 중복지원 가능

- ① 학생부교과전형[추천형],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 중 택 1 ② 학생부종합전형[국제형]
 ③ 학생부종합전형[기회균형] ④ 논술전형 ⑤ 특기자전형 ⑥ 고른기회전형[특수교육대상자]

[단, 학생부교과(추천형)와 학생부종합(활동우수형) 간 중복지원은 불가함]

4. 2025학년도 수시모집 주요 변경사항

- ▶ 학생부교과전형[추천형] 전형 방법 변경 : 면접 폐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신설

구분	2025학년도	2024학년도
지원자격 추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는 지원 불가	-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일괄합산(교과100)	단계별 전형 1단계(교과100) ⇒ 2단계(교과70 + 면접30)
	면접 X	면접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수능 최저학력기준 ○	수능 최저학력기준 X

*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하 '수능'이라 함
 ※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과 같음

▶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국제형] 면접방식 변경

면접 유형	2025학년도	2024학년도
	제시문 기반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 면접	제시문 기반 학업 역량 면접

▶ 의과대학 의예과 면접 방식 변경

구분	2025학년도	2024학년도
학생부교과[추천형]	면접 폐지	제시문 기반 인 · 적성 면접
학생부종합[활동우수형]	제시문 기반 인 · 적성 면접 서류 확인 면접	

▶ 학생부종합전형[기회균형 II] 폐지

▶ 논술전형(논술시험) 자연계열 과학 과목 폐지(수학 과목만 실시)

▶ 학생부종합전형[국제형(국내고)]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

2025학년도			2024학년도		
국어, 수학, 탐구*	영어	한국사	국어, 수학, 탐구	영어	한국사
2과목 등급 합 5 이내 (국어, 수학 중 1개 과목 포함)	2등급 이내	4등급 이내	2과목 등급 합 5 이내 (국어, 수학 중 1개 과목 포함)	1등급 이내	4등급 이내

* 수학 : 공통 + 선택(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 1), 탐구 : 사회탐구/과학탐구

▶ 특기자전형[국제인재] 언더우드국제대학 언더우드학부(인문 · 사회) 및 언더우드학부(생명과학공학) 면접 통합
- 언더우드학부(생명과학공학) 면접 문항은 언더우드학부(인문 · 사회)와 동일함

▶ 특기자전형[체육인재] 단계별 반영점수 변경

전형요소 및 반영점수	2025학년도					2024학년도				
	구분	교과	비교과	경기실적	면접평가	구분	교과	비교과	경기실적	면접평가
	1단계	15점	5점	60점	-	1단계	20점	10점	60점	-
	2단계	80점			20점	2단계	90점			10점

▶ 첨단학과 증원에 따른 인공지능융합대학 모집단위 신설, 명칭 변경 및 구조 개편

인공지능융합대학	2025학년도				2024학년도			
	모집단위	정원	수시	정시	모집단위	정원	수시	정시
	첨단컴퓨팅학부*	149	95	54	컴퓨터과학과	66	41	25
	IT융합공학전공	20	15	5	인공지능학과	58	43	15
	지능형반도체전공*	35	20	15	IT융합공학과	20	15	5
	합계	204	130	74	-	-	-	-
					합계	144	99	45

* 첨단컴퓨팅학부로 통합 모집 후, 2학년 진급 시 학부 내 세부전공(컴퓨터과학과, 인공지능학과, 인공지능시스템학과[신설]) 중 1개를 선택해야 함
(단, 컴퓨터과학과는 학과 정원의 100% 범위 내 전공 선택 가능)

* 지능형반도체전공(신설)은 국제캠퍼스에서 전 과정을 이수함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학생부종합전형이란?

학생부종합전형이란 입학사정관이 참여하여 학생부의 다양한 기록을 중심으로 지원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학교교육의 성공적인 이수를 바탕으로 어떠한 활동과 경험을 했는가를 확인하고, 지원자의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찾고자 합니다.

 활동우수형 684명	전형방법	1단계 서류평가 100% * 인문·통합계열, 국제형 3배수 * 자연계열 3배수	2단계 서류평가 60% 면접평가 40%
	지원자격	[활동우수형]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202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국제형] <u>국내고</u>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u>해외고/검정고시</u> •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 또는 2025년 3월 이전 졸업예정인 자 • 특별법에 의한 국제학교 졸업자로서 국내 고등학교 학력 인정을 받은 자 • 국내 소재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특별법에 의한 국제학교 졸업자로서 국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국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글로벌인재학부는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국제형 256명	최저학력기준	활동우수형/국제형(국내고) 적용	

 기회균형 197명	전형방법	1단계 서류평가 100% (3배수)	2단계 서류평가 60% 면접평가 40%
	지원자격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202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로서 다음의 지원자격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농어촌학생(초·중·고교 전 과정/ 중·고교 전 과정)	
	최저학력기준	없음	

 고른기회전형 (특수교육대상자) 13명	전형방법	일괄합산	서류평가 100%
	지원자격	국내 · 외 고등학교 졸업자(202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로 등록 (1급부터 6급까지만 인정)되어 있는 자	
	최저학력기준	없음	

학생부종합전형 지원 FAQ

Q 활동우수형과 국제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먼저 모집단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활동우수형은 대부분의 일반학과를 선발하고, 국제형은 언더우드국제대학 및 글로벌인재대학 모집단위만 선발합니다. 또한, 면접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활동우수형과 국제형의 면접 유형은 모두 제시문 기반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동일하지만, 국제형은 제시문이 영어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Q 전형 간 중복지원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만약 활동우수형으로 경영학과를 지원한다면, 국제형으로 융합인문사회과학부(HASS)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세부전형 간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학생부교과전형(추천형)과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 간의 중복지원만 불가합니다.**

예시 1	예시 2	예시 3
✓ 학생부교과(추천형) ✓ 학생부종합(기회균형) ✓ 논술전형	✓ 학생부교과(추천형) ✓ 학생부종합(국제형) ✓ 특기자전형 ✓ 논술전형	✓ 학생부교과(추천형) ✓ 학생부종합(활동우수형) ✓ 특기자전형 ✓ 논술전형
지원가능	지원가능	지원불가능 추천형과 활동우수형 중복지원 불가

Q 국제형의 경우 국내고등학교를 졸업한 지원자들이 해외 소재 고등학교 졸업 지원자들에 비해 불리하지는 않나요?

국제형은 국내고, 해외고/검정고시 의 두 가지 트랙으로 구분하여 학생을 선발합니다. 독립적인 트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학교의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서류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학교의 차이로 인한 유불리는 없습니다.

서류평가

서류평가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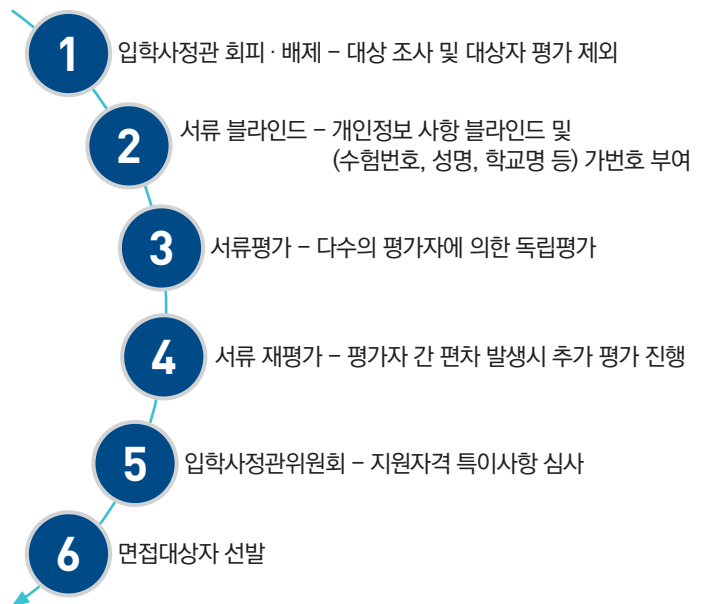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평가는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량적인 성적이나 결과를 우선에 두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3년이라는 생활 속에 나타난 다양한 경험의 의미와 가치를 두고 평가합니다. 그렇기에 학생이 속한 고등학교 환경에서 기울인 노력과 성실함 뿐 아니라 학업역량과 진로에 대한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연세대학교에 적합한 인재를 찾고자 합니다. 서류평가의 자료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 생활 전반의 기록이며, 교과학습 및 학교활동을 통한 성장 내역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서류평가 자료로서 학교생활기록부는 특정 부분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학교 생활에서 기재된 모든 기록이 평가 자료가 됩니다. 3년간의 연속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떠한 교육경험을 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과목 이수 방식, 활동사항 등이 고교에 따라 다르더라도 평가 방식 및 방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서류평가에서 기타서류(비교과 활동증빙)의 경우에는 해외고/검정고시 출신자만 제출 가능합니다.

1. 서류평가 절차 및 구성

가. 서류평가 절차

학생의 서류는 '다수의 평가자에 의한 다단계 평가'를 기본으로 합니다. 1명의 지원자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입학사정관이 평가를 하며, 여러 단계의 평가 과정을 거쳐 지원자의 우수성을 검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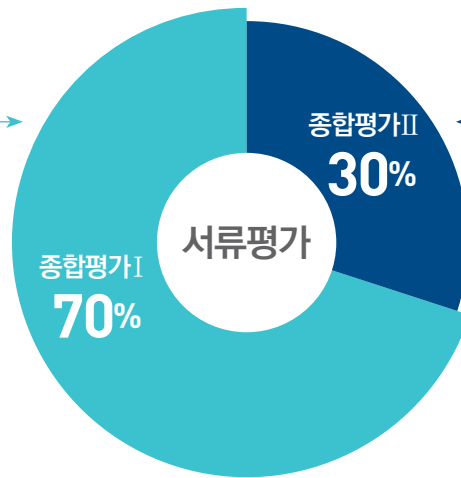


나. 서류평가 구성

학업적 발전 가능성

학업역량과 진로역량을
바탕으로 평가

학업역량과 진로역량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현된
학업적 성취와 노력을 평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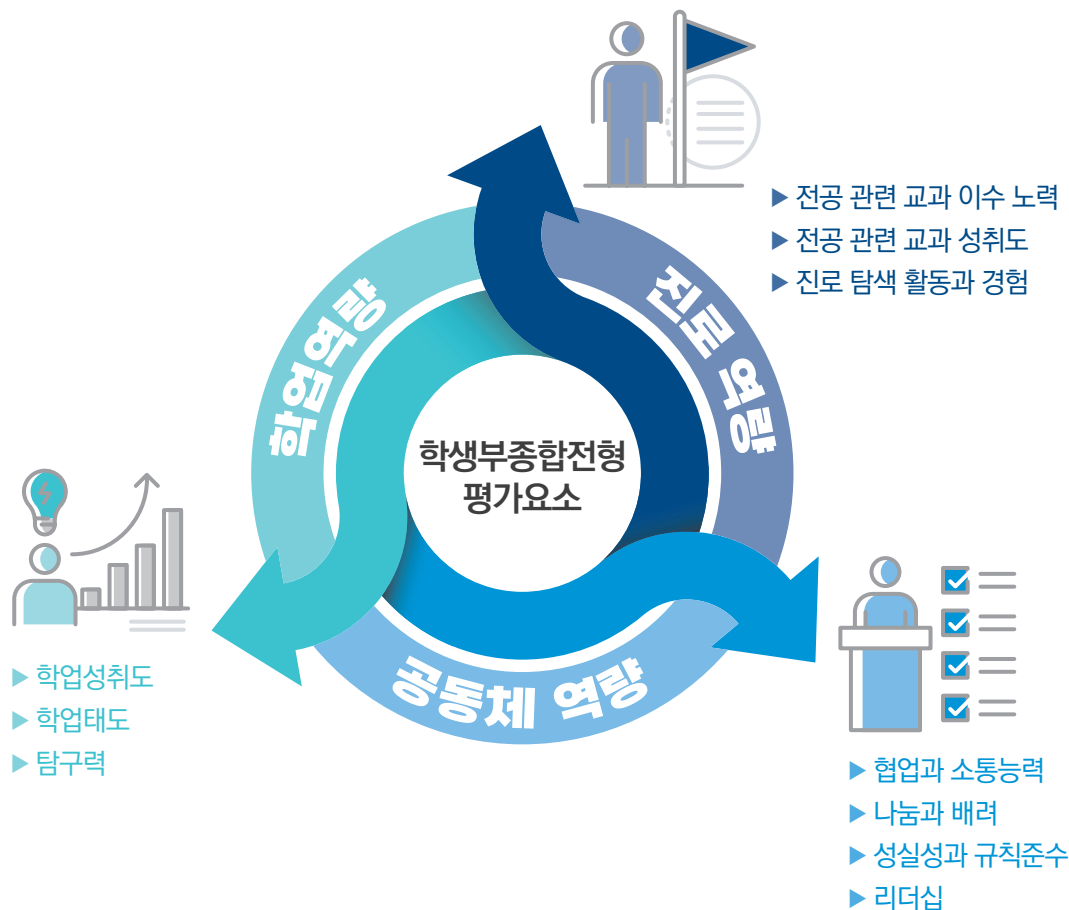


사회적 발전 가능성

공동체역량을 바탕으로 평가

비교과적 활동(또는 교내 활동)뿐만
아니라 학업역량과 진로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과정에서 보여준
타인과의 협력 활동을 포함합니다.

2. 서류평가 요소 및 항목



입학사정관은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을 확인하며 서류평가를 진행합니다. 새롭게 변경된 평가기준 및 요소를 바탕으로 대학에서 찾고자 하는 지원자의 세부 역량이 무엇인지 미리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서류평가에서는 특정 역량의 우수성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생활 속 다양한 경험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서류평가 과정에서 하나의 경험이 하나의 평가요소에만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의 경험이 여러 평가요소나 여러 평가 항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 평가 항목을 스스로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또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평가 내용]

학업역량 •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데 필요한 수학 능력

1 학업성취도 ▶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와 성취수준이나 학업발전의 정도

-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교과목(예: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등)의 교과성적은 적절한가? 그 외 교과목(예: 예술·체육, 기술·가정/정보, 제2외국어/한문, 교양 등)의 교과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가?
- 학기별/학년별 성적의 추이는 어떠한가?

CHECK POINT!

[종합적 학업성취도 평가] 재학 기간 중(3년간)의 평균적 학업성취도를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성적의 변화]** 학기/학년별 성적의 변화도 함께 고려하여, 학문적 발전가능성과 성적의 향상정도를 통해 지원자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각적 학업성취도 평가]** 단순 평균 성적이 아닌, 전 과목이나 기초교과의 과목을 통한 전체적인 학업능력과 희망 전공 분야 과목에 대한 개별 평가를 병행합니다.

2 학업태도 ▶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

- 성취동기와 목표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학습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 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수업내용을 이해하려는 태도와 열정이 있는가?

CHECK POINT!

[종합적 학업성취도 평가] 교과 수업 중 적극적 참여 및 스스로 탐구하는 태도, 교과목 선택과 이수 여부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특히 수업과 과제수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노력, 열의와 관심, 다양한 탐구 방법의 모색 등 의미있는 지적 성취를 통해 자기주도적 학업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탐구력 ▶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 교과와 각종 탐구활동 등을 통해 지식을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 교과와 각종 탐구활동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가?
- 교내 활동에서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이 드러나고 있는가?

CHECK POINT!

[교실수업을 통한 성장 과정] 수업내용에 대한 연계적 질문,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하는 노력, 진로에 관련된 수업의 수강 등 다양한 탐구 활동에 대한 참여와 역량을 기르기 위한 관심의 확장이 긍정적인 평가의 근거가 됩니다. **[수행평가]** 학생 스스로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지식과 기능을 적용하고 활용하는 활동을 통해 탐구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및 동아리 활동]** 주제 탐구, 프로젝트 학습관련 활동을 통해 꾸준한 탐구 의지를 확인하고 토론, 실험, 연구 활동 등을 통해서 탐구 역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진로역량 • 자신의 진로와 전공(계열)에 관한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

1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정도

-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이수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가?
-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노력을 하였는가? (예: 공동교육과정, 온라인수업, 소인수과목 등)
- 선택과목(일반/진로)은 교과목 학습단계(위계)에 따라 이수하였는가?

CHECK POINT!

[전공(계열) 관련된 적절한 과목 선택] 대학이 제공한 전공(계열) 분야의 교과 이수 권장 과목을 참고하여 전공별 또는 계열별 적절한 과목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수단위(과목) 수]** 전공(계열) 관련 과목을 얼마나 이수하였는지 확인하고, 교육과정 및 고교가 처한 환경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전공(계열) 관련 추가 노력]** 학교가 개설하지 않아 핵심, 권장 과목을 이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동교육과정 등 추가적인 개인적 학습 노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습단계(위계) 준수 여부]** 학습단계에 따라 난이도와 수준을 높여 이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 성취 수준

-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의 석차등급/성취도,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이수단위, 수강자수, 성취도별 분포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성취 수준은 적절한가?
- 전공(계열)과 관련된 동일 교과 내 일반선택과목 대비 진로선택과목의 성취수준은 어떠한가?

CHECK POINT!

[학업역량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이중적으로 평가] 전공관련 이수 과목의 성취도를 학업역량 학업성취도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교과종합평가]** 진로선택과목의 도입에 따라 석차등급 없이 성취도를 제공하게 되어 원점수와 평균, 이수단위와 이수자수 등을 고려한 정성평가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교과 내 일반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 비교 평가] 동일 교과 내 공통과목, 일반선택과목의 석차등급과 진로선택과목의 성취도를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교과 성취 수준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교과 내 일반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 종합 평가] 학습 부담이나 석차등급의 유·불리 때문에 쉬운 과목을 선택하기 보다 희망 전공(계열) 관련 과목을 이수하도록 권장합니다.

3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나 경험 및 노력 정도

- 자신의 관심 분야나 흥미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 교과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전공(계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탐색한 경험이 있는가?

CHECK POINT!

[관심 분야나 흥미 관련된 활동에 참여해 노력한 경험] 교과 지식 위주의 공부 이외에 학교 내 다양한 영역의 경험을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쌓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예술·체육 영역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문화적 감수성, 신체적 능력을 키웠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공(계열)에 대한 관심을 갖고 탐색한 경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교과수업활동(발표, 토론, 주제탐구)인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기록을 통해 희망 전공(계열)에 대한 관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역량 •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

1 협업과 소통능력 ▶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며, 구성원들과 합리적인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 단체 활동 과정에서 서로 돕고 함께 행동하는 모습이 보이는가?
- 구성원들과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고 완성한 경험이 있는가?
- 타인의 의견에 공감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정보와 생각을 잘 전달하는가?

CHECK POINT!

[서로 협업하는 모습] 동아리활동, 진로 활동 같은 창의적 체험활동부터 수업 내 학습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에 이르는 다양한 상황에서 동료 학생을 존중하며 함께 생활하는 모습이 공동체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교사 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력을 통한 공동의 과제 수행 및 완성] 학생중심의 다양한 수업에서 공동의 과제 작성, 발표 등 여러 협력 과정으로 성취한 결과물이 자발적으로 지속되거나 빈도가 높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타인의 의견에 공감, 수용하는 태도] 공감, 수용하는 태도 및 자신의 정보와 생각을 전달하는 것과 같이 소통능력의 좋은 예시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술된 내용을 토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나눔과 배려 ▶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

- 학교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생활화한 경험이 있는가?
- 타인을 위하여 양보하거나 배려를 실천한 구체적 경험이 있는가?
-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CHECK POINT!

[학교생활 속 나눔의 실천] 학급, 동아리, 수업 등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의 성장을 돕거나, 어려운 처지의 상대나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나눔을 실천한 노력, 교내 행사 및 축제 등 학교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활동 등이 생활화되어 있다면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양보와 배려를 실천한 경험] 상대의 요구, 의견 및 가치관이 충돌한 상황에서 나와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도록 이타적인 노력을 보인 경험이 있다면 긍정적인 평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노력] 일방적 나눔과 배려의 자세가 아닌 상대의 입장을 고려한 나눔과 양보, 배려 등을 실천해왔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성실성과 규칙준수 ▶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공동체의 기본 윤리와 원칙을 준수하는 태도

- 교내 활동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정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CHECK POINT!

[맡은 역할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노력] 수업출석, 단체활동 참여 등 학생으로서 해야하는 의무를 책임감있게 수행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맡은 역할을 위해 노력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규칙과 규정 준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는 편이라 그렇지 않은 경우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4 리더십 ▶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이끌어가는 능력

-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한 경험이 있는가?
- 구성원들의 인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를 이끌어내고 조율한 경험이 있는가?

CHECK POINT!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과 실행을 주도]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의 역할을 계획하거나 실행한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인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 및 조율] 목표 달성을 위한 자발적 참여에 영향을 미치거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등을 확인합니다.

3. 자연계열 교과 이수 권장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 학교에서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대학 지원자 이수 과목을 분석해보면 학생마다 과목 선택이 다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여러 대학과 교육청 등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전공에 따른 과목 선택 안내를 하고 있으며, 희망 전공에 맞춘 과목 선택을 학생부종합전형의 준비 과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환경 변화에 맞춘 5개 대학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대학의 자연계열 전공과 연계한 이수 권장 과목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에 자연계열 전공 모집단위를 14개 학문 분야별로 나누어 고교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이 가능하도록 수학·과학교과 과목을 중심으로 핵심과목과 권장과목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연계열 교과 이수 권장 과목을 제시하는 이유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배워야 할 과목을 대학에 입학한 뒤 대학 수업과 병행하여 다시 공부하기가 쉽지 않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연계열 학문 특성상 학습단계에 따라 충실히 이수하는 것이 대학 입학 후 학습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과목’은 학교에서 수학(修學)하기 위해 ‘필수’로 이수하기를 권장하는 과목이며, ‘권장과목’은 학교에서 수학(修學)하기 위해 ‘가급적’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입니다. 이러한 안내가 학생들의 수능 응시과목 위주의 과목 선택에서 벗어나 진로와 적성에 따라 희망 전공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과목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학생의 과목 선택, 고등학교 교육 과정과 대학 교육과정의 실질적인 연계를 기대하며 자연계열 교과 권장 과목을 안내합니다.



Question

대학이 제시한 핵심과목,
권장과목 중 우리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과목이 있는데,
만약 이수하지 않으면 평가에
불이익이 많이 있나요?

일반고에 재학중인 학생인데요,
그러면 전문교과의 고급,
심화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되나요?

표에 제시된 핵심, 권장과목
이수 여부를 실제 대입 평가에서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Answer

이수 권장 과목 중 일부 과목을 듣지 않은 경우, 평가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대학은 학교가 개설하지 않아 이수하지 못한 학생과 학교가 개설했음에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을 다르게 평가합니다. 학생이 처한 상황도 고려하겠지만 추가적인 노력도 기대합니다. 학교가 개설하지 않았다면 외부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하길 추천합니다. 동일 과목이 없으면 유사 명칭의 과목을 이수하세요.

대학의 입학사정관은 어떤 과목을 들었느냐보다 어떤 과목이라도 얼마나 충실하게 이수했느냐를 우선하여 평가합니다. 고교 교육환경을 반영하여 일반고는 보통교과의 일반선택 과목과 진로선택과목을 충실하게 이수하면 됩니다. 일반고의 경우 표에서 제시된 권장과목인 보통교과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심화 학습과정에서 일반고 학생도 진로선택과목이나 공동교육 과정으로 전문교과를 들을 수 있겠지만 이때 위계에 맞게 충실하게 이수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주로 학생부종합전형 등 서류평가에서 반영합니다. 해당 전공에 적합한 학생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학업역량이나 진로역량 등을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실하게 이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이수 과목 수와 이수 단위의 적정성도 살펴봅니다. 핵심, 권장과목 이외의 과목 중에서 기술·가정, 생활·교양, 기타 고교 자체 개설 과목 중에서도 지원 전공과 관련한 과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표에서 제시된 핵심과목과 권장과목은 예시 수준으로 이외의 과목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으니, 대학에서 공부하는데 필요한 과목들을 다양하게 이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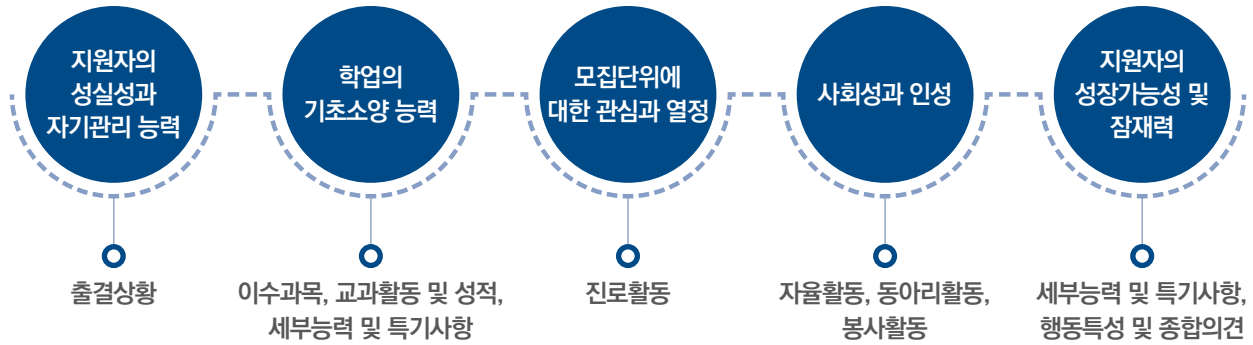
[자연계열 전공 학문 분야의 교과 이수 권장 과목]

학문 분야	모집단위	핵심과목 : 학과(부)에서 수학(修學)하기 위해 '필수'로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		권장과목 : 학과(부)에서 수학(修學)하기 위해 '가급적'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	
		핵심과목		권장과목	
		수학교과	과학교과	수학교과	과학교과
수학	수학과 응용통계학과	수학I, 수학II, 미적분, 기하	-	확률과 통계	-
컴퓨터	IT융합공학전공 첨단컴퓨팅학부	수학I, 수학II, 미적분, 기하	-	확률과 통계, 인공지능수학	-
산업	산업공학과	수학I, 수학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	-	-
물리	물리학과	수학I, 수학II, 미적분, 기하	물리학I, 물리학II	확률과 통계	화학 I
기계	기계공학부	수학I, 수학II, 미적분, 기하	물리학I, 물리학II, 화학I	확률과 통계	화학II
전기·전자	시스템반도체공학과 전기전자공학부	수학I, 수학II, 미적분, 기하	물리학I, 물리학II, 화학I	확률과 통계	-
건설/건축	건축공학과 도시공학과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수학 I, 수학II, 미적분	-	확률과 통계, 기하	물리학 I
화학	화학과	수학 I, 수학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화학 I, 화학II	기하	물리학 I, 물리학II, 생명과학 I
재료/화공 고분자 에너지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 신소재공학부 화공생명공학부	수학 I, 수학II, 미적분	물리학 I, 화학 I, 화학II	확률과 통계, 기하	물리학II
생명과학 환경/생활과학/농림	생명공학과 생화학과 시스템생물학과	수학I, 수학II	화학 I, 생명과학 I, 생명과학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화학II
천문·지구	대기과학과 지구시스템과학과 천문우주학과	수학 I, 수학II, 미적분	물리학 I, 화학 I, 지구과학 I, 지구과학II	확률과 통계, 기하	물리학II
의학	의예과 치의예과	수학 I, 수학II, 미적분	화학 I, 생명과학I, 생명과학II	확률과 통계	물리학 I, 화학II
약학	약학과	수학 I, 수학II, 미적분	화학 I, 화학II, 생명과학 I, 생명과학II	확률과 통계, 기하	물리학 I
간호/보건	간호학과	수학 I, 수학II, 확률과 통계	생명과학 I, 생명과학II	미적분	화학 I, 화학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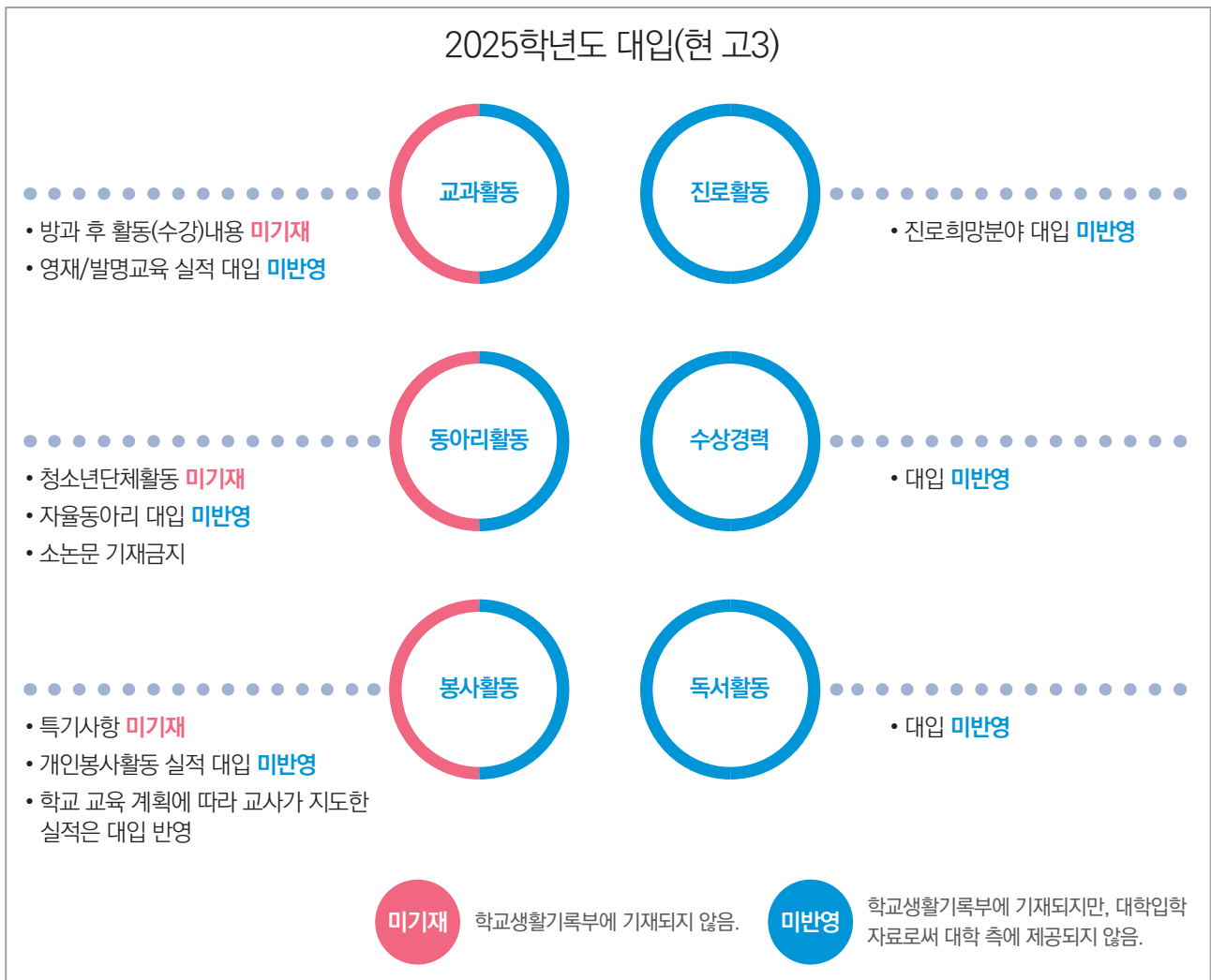
※ 경희대·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중앙대 5개대학 공동연구「고등학생 교과이수 과목의 대입전형 반영 방안 연구 - 자연계열 모집단위를 중심으로」의 교과 이수 권장 과목 중 연세대 해당 전공 학과 부분만 발췌함.

4.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는 고등학교 3년간 지원자가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보여주는 공식적인 자료이므로 서류평가에서 활용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3학년 1학기까지, 졸업자는 3학년 2학기까지 기재된 모든 내용을 평가에 반영합니다. 입학사정관들은 학생부의 모든 항목을 꼼꼼히 읽은 후에 종합적으로 평가하지만, 중점적으로 보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제외 항목]



1 인적·학적사항, 출결상황

학교생활의 성실성과 근면성을 판단하고 다른 영역을 평가할 때 참고하는 항목입니다. 전입학, 편입학, 재입학 등의 변동과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학적변동일	학적사항
2022-02-09	○○중학교 제3학년 졸업
2022-03-02	○○고등학교 제1학년 입학

학년	수업 일수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			특기 사항
		질병	미인정	기타	질병	미인정	기타	질병	미인정	기타	질병	미인정	기타	
1	191	0	0	0	0	0	0	0	0	0	0	0	0	개근
2	192	0	0	0	0	0	0	0	0	0	0	0	0	개근
3	111	0	0	0	0	0	0	0	0	0	0	0	0	

2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학생의 관심 영역을 파악하고, 자기주도성과 인성 및 태도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공동체 활동의 협력적인 태도, 지속적인 참여 과정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활동을 확인하고 학생을 이해하는 근거로 활용합니다. 학생 본인의 관심과 흥미, 적성에 따라 충실히 활동하고 그 우수성이 드러나는 경우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율활동

수동적으로 단순히 참여한 활동에 대한 기록은 의미 있는 평가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학생 개인의 능동적인 활동과 노력이 무엇이었는지 평소 기록해 두고, 자신의 역할과 자율활동의 참 뜻을 생각하며 활동한다면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자율활동	2 학급의 체육부장(2023.03.02.~ 2023.12.20.)으로 활동하면서 체육활동시 반 친구들의 체력 증진 및 안전을 위해 노력함. ... 교내 체육대회(2023.05.17.)에서 체육대회 이후 앉았던 자리의 쓰레기와 응원도구 등을 정리하여 뒷정리를 깔끔하게 함. 명사초청강연(2023.11.27.)을 통해 언어영역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배우고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실천의지를 다짐.

Q 전교 학생회장, 학급회장, 부장 등과 같은 임원활동 경력만이 평가에서 중요하게 반영되나요?

A 임원활동 경험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역할이라도 학교 구성원으로서 수행한 역할의 내용과 학생의 주도성과 책임 의식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리더가 아니더라도 교과활동, 동아리 활동에서 주도적 노력으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협력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동아리활동

동아리활동은 지원자의 관심영역을 바탕으로 탐구 역량, 자기주도성, 적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동아리 활동의 기록 중 참여 및 협력 정도, 활동실적 등을 통해 지원자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시	
동아리 활동	1 (언론홍보부) 언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언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함. 특히, 상업광고의 심층 분석을 바탕으로 상업 광고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광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토론 활동에 임함.

준비 꿀팁! 학술동아리라면 어떠한 주제의식을 갖고 활동을 진행하였는지 또는 문제해결 방법 등 구체적인 활동 과정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동아리 일지를 활용하여 꾸준히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율동아리의 경우 미반영되므로, 창의적체험 동아리를 통해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된 동아리에 집중적으로 참여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3 봉사활동

봉사활동은 학생의 배려, 공동체 의식과 같은 인성과 태도를 파악하는 요소로 활용합니다. 교내·외 봉사활동을 따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으며, 단순히 봉사시간이 많은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참여한 진정성 있는 활동의 경우 긍정적인 평가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시				
학년	일자/기간	활동내용	시간	누계시간
1	2022.03.15.	가스안전교육	2	2
1	2022.05.07.	생활지원(식사, 목욕, 간병 등)	4	6
2	2023.02.14.	교내 환경 정화활동	2	8
2	2023.05.23.	멘토링 자원봉사 활동	2	10
...	...	...	...	...

Q 봉사활동 기재 부분 변경에 따른 변화가 있나요?

A 봉사활동 특기사항이 삭제되지만,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 실적은 그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실적은 동일하게 기재되기 때문에 지원자의 참여동기와 목적, 수행한 활동을 통해 성장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진로활동

진로활동은 지원자의 관심 영역과 자기주도적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설정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로희망분야의 경우 미반영**되며, 지원자가 진로 설정을 위해 수행한 노력과 활동 및 태도의 변화 등 진로활동과 관련된 사항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예시	
진로활동	2 학생부종합전형 자기소개서 특강에 참여하여 생활기록부를 활용한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짐(2023.06.27.).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본교 졸업생들의 학습 방법과 경험담, 진학과 대학 생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 방법을 진로 진학 계획 수립에 활용함(2023.07.10.). ... 급우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과 의지를 갖게 되었고, 비슷한 진로를 희망하는 이들과 관심사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 전공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를 수집하고 진로계획서를 작성함(2023.12.19.).

준비 꿀팁! 진로 활동 참여 시에는 수동적인 태도보다 관심영역에 대한 사전 자료 준비, 질문리스트 작성 등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지원자의 관심 진로에 대한 열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3 교과학습 발달상황

학업의 성취 수준과 노력을 바탕으로 기초학업역량, 전공수학능력 등의 역량을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교 교육과정에서 지원하는 전공(계열)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학생의 관심과 이해, 노력과 준비 정도를 확인하고 지원자를 이해하는 근거로 활용합니다.

[예시]		1학기				2학기			
	과목	단위수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 등급	단위수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등급
1 학 년	과학탐구실험	1	65/76.4	274	1	1	91/75.8	272	2
	국어	4	92/74.8	274	2	4	90/72.7	272	3
	기술·가정	2	82/72.7	274	4	2	95/72.4	272	1
	수학	4	81/65.7	274	3	2	82/65.0	272	3
...	...	...	...	...	...	...	...	...	...

Q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선택 과목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수업을 선택하고 수강합니다. 하지만 지원자마다 학교의 조건과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선택 과목의 이수여부나 교과성적에 따라 일괄적인 가중치를 두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지원자가 처한 교육 환경에 학습의 목적을 생각하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진로에 필요한 과목들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수 과목을 적절하게 설계하여 충실히 이수한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계열의 경우 앞서 안내한 '전공 학문 분야의 교과 이수 권장 과목'을 참고하여 과목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서류평가 시 모집단위별로 반영 교과가 정해져 있나요?

A 모집단위와 상관없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모든 교과가 평가에 반영됩니다. 모집단위별 반영 교과를 전공과 관련지어 세부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지원자가 지원하는 계열(인문계열, 자연계열)의 기본 소양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평가자는 교과 등급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수단위, 수강자 수, 원점수(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을 참조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지원자의 수학·과학에 대한 관심과 탐구능력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학생부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학교생활의 충실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교과에만 집중하기보다 학교에서 개설되는 모든 교과에 노력을 기울여 고른 교과 역량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Q 진로선택 과목이나 전문교과 등의 심화 과목을 많이 이수해야만 서류평가에서 유리한가요?

A 지원자가 선택하여 이수한 과목은 학업적 흥미를 보여주는 것으로, 학업역량의 측면이나 학업태도, 탐구활동 등의 관점에서 평가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지원자마다 학교의 조건과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목의 이수 여부나 교과 성적에 따라 일괄적인 가중치를 두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지원자가 자신이 처한 교육환경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연계열 학생의 경우에는 '자연계열 전공 학문 분야의 교과 이수 권장 과목'의 핵심과목, 권장과목을 참고하여 교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업의 성취수준과 노력을 바탕으로 학업역량을 가늠하여 학업 수월성 및 전공 기초소양을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학생이 수업에 임하는 태도와 학습과정,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 교과 담당 선생님의 평가를 알 수 있어 매우 의미있는 자료입니다. 또한 토론, 조별활동, 개인 과제 등 다양한 기록을 바탕으로 지원자의 학업역량과 수업 참여 정도를 파악하지만, 단순 기술내용의 분량이나 내용 자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전반에 걸쳐 지원자의 성장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여주는 경우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예시	
학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	(1학기) 통합과학 : 과학 수업에 집중력이 높은 학생으로, 잘 이해하지 못한 수업 내용은 질문을 통해 이해하는 학생임. 생물학적 가설에 대해 과학자들이 가졌던 의문을 되짚어 보는 활동에서 과학적 사고력이 뛰어나고 질문을 통하여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특히, 과학 분야 중에서도 화학영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함. 매시간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는 자세를 보임.

Q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어떤 부분을 평가하나요?

A 한 학기 동안 각 교과 담당 선생님이 관찰한 학생의 모습을 작성해주는 항목입니다. 단순히 성취나 결과보다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발전과 성장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업시간에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선생님이 작성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생의 다양한 표현 능력 및 학습 습관을 발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평가항목 중 하나로 반영됩니다.

5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생의 학교 활동 전반을 바탕으로 특성과 태도를 총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담임 교사의 관찰을 통해 학생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내용으로써 지원자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평가 자료로 활용합니다.

예시	
학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	밝고 긍정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규칙을 준수하고 성실하고 예의 있는 태도로 학교생활을 하며 많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인정을 받음. ...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모둠 과제를 수행할 때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조원들이 과제 수행에 협력하도록 독려함. ... 자기주도성이 뛰어나 자신이 정한 목표에 따라 계획성 있고 효율적으로 생활함.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계획한 학습 목표를 달성함.
2	...
3	...

Q 행동특성의 경우 담임교사 한 명이 기록하는 항목이다 보니 담임선생님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데, 행동특성이 실제평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A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경우 담임교사가 1년 동안 학생의 모습을 관찰하여 기록하는 항목입니다. 다른 평가항목과 달리 인성 관련 부분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미반영되는 봉사, 독서 관련 활동의 특성과 의견도 해당 항목에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의 경우 중요한 평가항목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비교과활동은 자신의 관심을 구체화하는 과정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면서 자신의 관심분야와 관련된 역량을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경험을 하세요.

고교생으로서 불가능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나, 일시적인 봉사활동 등 자신을 그럴듯하게 꾸미기 위한 활동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주어진 고등학교 환경 속에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활동과 경험을 꾸준히 하길 바랍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활동하세요.

1학년 때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으며 현재 어떤 과정 중에 있고 미래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히 보여주세요. 지원자 자신이 원하는 진로와 비교과활동을 통해서 보여준 과정과 결과들이 일맥상통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관심 전공에 대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슬기로운 학생부종합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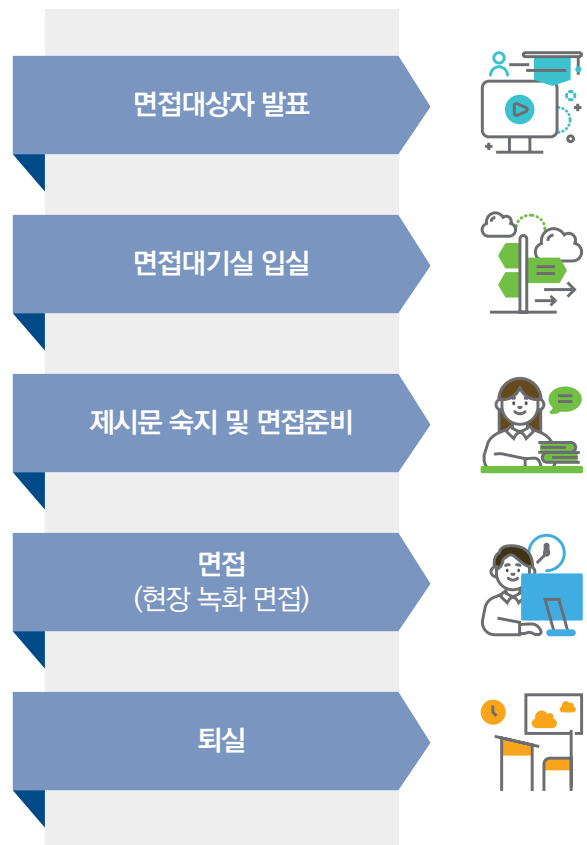
면접평가

1. 면접평가 안내

면접은 서류에 드러나지 않는 지원자의 논리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연세대학교의 면접에서는 제시문을 활용한 면접 문항이 나옵니다. 활동우수형과 국제형에서는 제시문 기반 면접 방법은 유지되나, 2025학년도부터 학업역량이 아닌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하는 면접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균형전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하는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활동우수형	국제형	기회균형	
평가유형	현장 녹화 면접			
평가방법	면접 당일 지원자가 현장에서 녹화한 영상을 복수의 평가위원이 평가함			
평가 내용	제시문 기반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함 ※ [국제형]의 경우 제시문이 영어로 출제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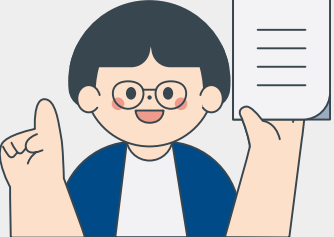
2. 면접평가 절차



3. 제시문 기반 면접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에서는 제시문을 활용한 면접 문항이 사용됩니다. 지원자는 제시된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이유에 대하여 논리적인 근거를 가진 답변을 구성하여 대답하면 됩니다. 지원자는 해당 면접이 '제시문 기반' 면접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여 제시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기반하여 답변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2025학년도부터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 면접'으로 진행이 되므로 문항에 대한 정해진 답이 없으니 제시문을 잘 해석해 답변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알려주는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꿀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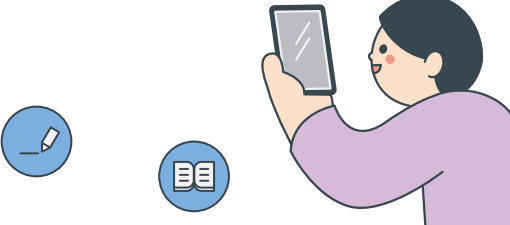
제한 시간 안에 답변 준비하기

연세대학교의 면접은 제시문을 읽고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과 답변을 녹화하는
시간으로 나누어집니다. 평소에 시간을
정해놓고 제시문을 정리하고
답변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전자기로 얼굴 보며 연습하기

면접 당일, 녹화를 위해 태블릿 PC에 비춘
자기 모습이 어색해 당황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연세대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은
현장 녹화 방식이기 때문에 면접관이 아닌
자신의 모습을 보며 답변을 해야합니다.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연습해 두면 좋겠죠?



전년도 기출문제 살펴보기

연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오시면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년도 면접 기출 문제를 비롯해 출제와 관련한
다양한 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기출문제를 보며
현장 녹화 방식 면접을 미리
준비한다면 긴장감도
줄어들거예요!



※ 활동우수형 의예과의 경우, 대면면접이며 제시문기반 인·적성 면접 및 서류기반 확인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4. 면접 기출 문제

[기회균형 I, II (2024학년도 기출)]

2024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기회균형 I, II 면접구술시험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가] 어떤 질병의 원인을 밝히거나 치료법에 관해 연구할 때 우선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하여 성공하면 그 후에 임상 시험을 시행한다. 과학자 중에는 인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열정적인 과학자들이 있다. 배리 마샬 박사는 박테리아를 자기 몸에 키운 것으로 유명하다. 1980년대까지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위에서는 위산 때문에 박테리아가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샬 박사는 위궤양과 위염이 박테리아 때문에 생긴다고 믿었다. 이를 동물 실험으로 증명하려고 했지만 계속 실패하자 1984년 배양 중이던 헬리코박터균을 직접 마셔 버렸다. 실험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균을 삼키자, 위산 분비가 멈추고 구토가 나면서 위염에 걸린 것이다. 이어서 헬리코박터균을 없애는 항생제를 먹자 천천히 병이 나았다. 이 실험을 통해서 마샬 박사는 헬리코박터균이 위장병의 주원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했고, 또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까지 밝혀냈다.

[나] 2013년 한 포털 사이트에 ‘자연주의 육아’를 표방하는 카페가 개설되어 사람들을 끌기 시작했다. 이들은 열이 나도 해열제 쓰지 않기, 아토피에 연고는 물론 보습용 로션도 바르지 않기, 백신 맞지 않기 등 현대 의학의 원칙을 부정하는 말을 퍼뜨리며 세를 불렀다. 대안으로 발효식과 해독을 강조했는데 이를 위해 카페 회원들이 모여 장을 담그는 행사를 열고, 숯가루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을 썼다. 의학적 근거가 없는데도 회원이 계속 늘어난 것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서사를 많이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들에 의하면 아토피는 피부에 열이 쌓여 생긴다. 따라서 땀을 내어 열을 빼야 한다. 굵어서 큰 상처가 나면 땀구멍보다 더 큰 구멍이 나므로 열이 더 잘 빠져나간다. 따라서 굵어도 그냥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엄마들은 건강한 아이를 낳았는데 병원에서 아픈 아이를 만든다”거나 “엄마들은 직장에 다니랴, 아이를 키우랴 정신이 없다”는 감성 어린 위로도 적절히 섞었다. 햇빛 많이 쬐기, 밖에서 많이 뛰어 놀기 등 건전하고 바람직한 육아 원칙도 함께 권유했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보기엔 황당한 것 같다가도, 심지가 곧고 독심 있게 올바른 방향을 추구한다는 인상을 주기도 했다.

[다] 어리석거나 무지하거나 미치지 않아도 누구나 음모론적인 애깃거리에 귀가 솔깃해진다. 음모론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찾는 인간의 강박적인 욕구를 반영한다. ‘세상에는 왜 이렇게 나쁜 일이 끊이지 않을까?’라는 인간 삶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하여 음모론은 명쾌한 답을 제공한다. 음모론자의 상상 속에서 나쁜 일은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들만 역사적 사건이 우연히 발생할 수 있다고 믿는다. 사람들은 음모론의 단순함에서 위안을 찾는다. 그것이 아무리 큰 폐해를 낳더라도 말이다. 악한 일들은 추상적인 역사적, 사회적 변수들의 엄청나게 복잡한 소용돌이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꼴을 못 보는 사악한 자들 때문에 일어난다. 숨겨진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어야만 당신은 악당들과 맞서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라] 빨간색 전구와 초록색 전구가 나란히 있다. 두 전구는 한 번에 하나씩 계속 깜박인다. 빨간 전구는 초록 전구보다 4배 더 자주 켜지지만, 매 순간 어느 전구에 불이 들어올지는 우연에 의해 결정된다. 두 전구가 점멸하는 일련의 과정을 충분히 관찰한 후, 이제 관찰자는 매번 어느 전구에 불이 들어올지 예측해야 한다. 실험 결과, 사람보다 쥐가 이 게임을 더 잘했다. 사람을 제외한 동물은 켜질 확률이 높은 전구만 오로지 선택한다. 성공 보상으로 먹이를 얻을 때, 쥐는 빨간 전구를 고르면 된다는 것을 금방 깨닫는다. 과거에 가장 자주 일어났던 옵션을 늘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80%에 가까운 성공 확률을 보인다($0.8 = 0.8 \times 1 + 0.2 \times 0$). 하지만 사람은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맞춰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 빨간 전구가 켜질 거라는 선택을 초록 전구보다 4배 더 많이 한다. 이 전략의 문제점은 어떤 전구가 다음에 켜질지가 무작위로 정해지기 때문에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패턴이 없다고 말해줘도 사람은 패턴을 알아내려고 애쓴다. 그 결과, 예측에 성공할 확률은 68% 정도에 그친다($0.68 = 0.8 \times 0.8 + 0.2 \times 0.2$).

[문제 1]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제시문 [가], [나], [다]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60점)

[문제 2] 제시문 [라]에서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전략을 쓰는 이유를 제시문 [다]의 내용과 연관 지어 설명하시오. (40점)

※ 2025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국제형] 면접방식이 ‘제시문 기반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 면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4학년도에 ‘제시문 기반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 면접’으로 진행한 기회균형 I, II의 면접 제시문과 문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접 방식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수시 모집 요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의 신설학과 및 계약학과 소개

신설학과 인공지능융합대학 첨단컴퓨팅학부 인공지능시스템학과

학과 소개 및 설립 배경

- 인공지능융합대학 첨단컴퓨팅학부 인공지능시스템학과는 2025년 신설되는 신촌캠퍼스 소속 학과로, 미래 사회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과 이를 구동하는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학문 분야인 인공지능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신촌캠퍼스 소속 컴퓨터학과와 인공지능학과 두 학과가 연합으로 신설하고 운영하는 학과입니다.
-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첨단 분야는 초거대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인공지능 반도체와 같이 인공지능 모델/응용 수준의 역량뿐만 아니라 컴퓨터시스템 소프트웨어/하드웨어를 깊이 이해하는 시스템적 역량이 어우러져 함께 발전하는 고도의 기술 집약적 분야입니다. 인공지능시스템학과는 이러한 기술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인공지능과 컴퓨터시스템 두 분야를 두루 섭렵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시스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교수진

- [전임 교수진]** 컴퓨터구조, 컴파일러, 운영체제,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기계학습, 딥러닝 등 컴퓨터시스템과 인공지능 분야 전문 교수들로 구성
- [겸임 교수진]**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수학, 통계학 등 컴퓨터과학 및 관련 분야 전문 교수들로 구성

교육 목표

- 인공지능과 컴퓨터시스템 두 분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세계 최고 수준 인공지능시스템 전문가 양성
- 고도의 인공지능시스템 기술력을 다양한 응용 및 산업 분야에 접목하여 사회적/산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 양성

장학금 및 특전

장학금 지원

- 성적우수 장학금
- 기초과목 수업 멘토링 장학금
- 대학원 연계 연구조교 장학금

연구 활동 지원

- 국제적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해외 산업체 견학 지원
- 인공지능시스템 관련 산업 현장 실습 기회 제공
- 대학원 연구실 인턴십을 통한 연구 참여 기회 제공
- 교내외 연구성과 발표회 참가 및 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

졸업 후 진로

취업

- 실무 중심의 기업 밀착형 교육을 통해 기업의 수요 중심의 인력 양성
- Google, NVIDIA, Facebook 등의 해외 기업과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SK 등 국내 유관 기업으로의 취업이 가능하며, 이외에도 의료, 금융, 제조, 교육, 자율주행 등 인공지능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취업이 가능함

대학원 연계 진학(본교)

- 국가 BK21 Four 사업(컴퓨터과학과 대학원 인공지능시스템 전공)을 통해 국가 장학금 지원
- 학사 - 대학원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 졸업 후 1.5년 내 석사 취득 또는 5년 내 박사 취득 가능

인공지능융합대학 첨단컴퓨팅학부 인공지능시스템학과 교육 목표, 교육과정, 취득학위 등 자세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인공지능융합대학 홈페이지(<https://computing.yonsei.ac.kr>) 참조

신설학과 인공지능융합대학 지능형반도체전공

학과 소개 및 설립 배경

- 2025년에 신설된 지능형반도체전공은 인공지능융합대학 첨단융합공학부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지능형 반도체는 폰 노이만 아키텍처의 한계와 데이터 병목 현상을 극복하고, 머신러닝, 딥러닝 등 고급 인공지능 기술을 내장하여 AI 연산,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 다양한 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반도체 기술입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은 SW부터 HW, 통신, 인공지능, 첨단 플랫폼 응용에 이르는 융합적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지속 가능한 기초과학 연구와 함께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와 IT 융합 기술 개발을 위한 혁신 인재의 양성이 중요합니다.
- 지능형반도체전공이 신설되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인천 송도)는 인천국제공항에 인접하여 국제적 교육/연구를 위한 글로벌 협력이 용이하며, 현재 66개국에서 온 2,500여명의 학생들이 국제캠퍼스에서 수학 중일 정도로 국제화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캠퍼스의 연세사이언스파크(YSF)는 대학의 주도하에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산(産)-학(學)-연(研)-병(病)-관(官)의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융합 교육을 선도 하는 학부 및 대학원, 연구중심 임상병원, IT-바이오메디컬 혁신클러스터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교육-연구-혁신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지속 가능한 혁신생태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 연세대학교는 정부의 ICT명품인재양성사업('10~'19)의 일환으로 설립한 글로벌융합공학부(現 IT융합공학과)에서 국내 최초로 7년 만에 학사 및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학제(3+4 학제)를 도입하여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13년간 운영해 온 3+4 학제에 대한 노하우를 '지능형반도체전공'에 접목하여, 우수 학생들의 박사과정 유입 활성화 및 첨단분야 고급 연구인력 조기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교육 목표 및 교육과정 운영 계획

- 소재/공정, 회로, 시스템 전체를 아우르는 교육을 기반으로 차세대 지능형 HW-SW 융복합 플랫폼 기술 구현을 통하여, 미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반도체 원천기술 선점 및 시스템 응용 기술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함
- 기존 학과 간 장벽으로 인해 유관 분야 협동 연구가 제한되는 점을 극복하고, 지능형 반도체 교육과 연구가 대학원 중심으로 발전하여, 국내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함
- 우수 박사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7년 과정(아인슈타인 트랙) 및 우수 학사급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4년 과정(스티브잡스 트랙)을 운영함

아인슈타인 트랙	스티브잡스 트랙
- 학사과정 3년+석박사통합과정 4년 연계를 통해 7년 만에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교육과정 - 학사과정 중 1년 심화 연구 과목 이수 필수	- 석사 수준의 교과목 일부 이수를 통한 전공 지식 심화 및 실무가 강조되는 학사과정 4년의 교육과정 1년 심화 연구 과목 대신 산업체 현장실습 과목으로 대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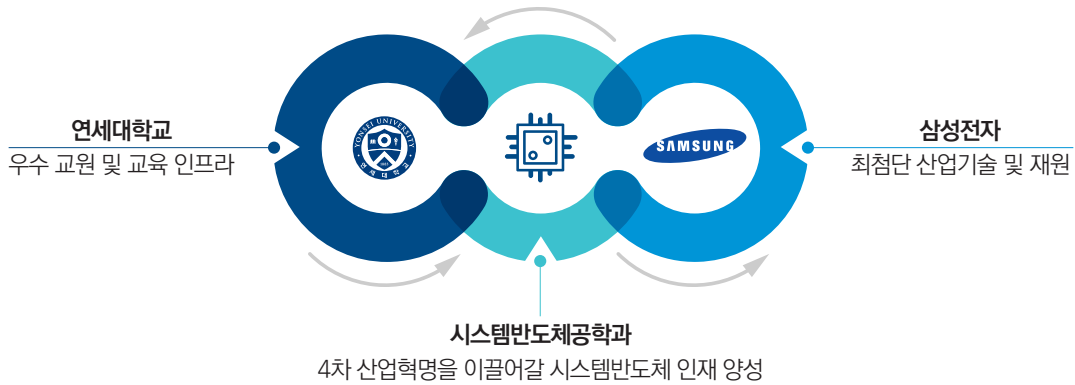
- 지능형반도체전공 학생들은 1학년 Residential College(RC) 교육 이후에도 본인 희망 시 기숙사 생활을 통한 전인교육 지속 가능

기존 학과와의 연계성

- 연세대학교는 2011년 이래 다학제적인 융합공학의 교육체계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융합 교육 및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학생 개인의 창의적 역량 개발과 자기주도적 융합연구를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기존 IT융합공학과 재학생 대부분이 학부를 3년에 마치며 연계하여 진학한 대학원 과정에서 장학금 지원으로 융합연구를 수행한 후, 인공지능, 지능형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통신, IoT 융합, 바이오 헬스, 국방 기술 등 폭넓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반대학원 지능형반도체IT융합전공'을 신설하여 재료, 소자, 공정, 설계, 컴퓨터구조, AI, 6G, IoT를 아우르는 대학원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신설되는 첨단융합공학부(School of Integrated Technology) 내의 지능형반도체전공과 IT융합공학전공은 공통된 핵심 교육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반도체와 IT 융합 기술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이러한 연계성은 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협력, 학부 교수진과 학생들의 긴밀한 교류 및 개별 연구와 통섭 연구, 그리고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한 학생들의 전문성과 실무역량 함양에서 나타납니다.
- 지능형반도체전공과 IT융합공학전공은 공통된 핵심 교육 및 대학원과 연계한 심화 연구 과정을 통하여 반도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통신,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기반 지식을 함양하고 있으며 전공 간의 융합적 연구 협력을 통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합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 반도체 소자 공정, 지능형 반도체 프로세서, 지능형 응용 플랫폼 등 다양한 연구 그룹이 상호 협력하여 지능형반도체 분야에서의 첨단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융합대학 지능형반도체전공의 교육 목표, 교육과정, 취득학위 등 자세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인공지능융합대학 홈페이지(<https://computing.yonsei.ac.kr>) 참조

계약학과 공과대학 시스템반도체공학과



2024년 현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반도체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반도체 산업은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연세대학교는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2019년 시스템반도체 공학과를 설립하였습니다. 미래 산업 기술의 핵심인 ‘반도체’와 이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연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맞춤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국내 최고의 교수진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탄탄한 지식과 실무 능력을 두루 갖춘 첨단 반도체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EAGLE 형 인재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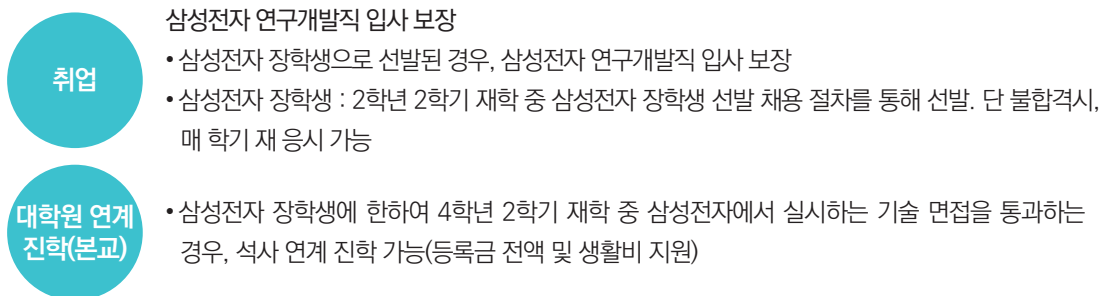
반도체 공정/소자부터 아날로그/디지털 회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시스템까지 시스템반도체 전 영역의 수직적 구성 교육

졸업과 동시에 실무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반도체 전 영역에 대해 실험/실습 및 인턴 교육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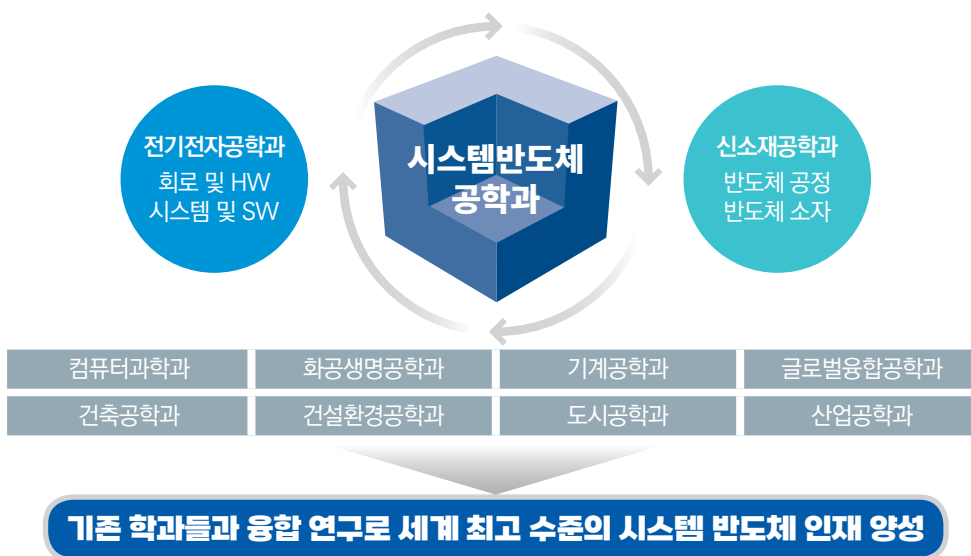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는 무엇을 배우나요?

시스템반도체공학과에서 배우는 교과목들은 크게 설계, 재료, 소자·공정, 시스템소프트웨어 분야의 이론 및 실습을 아우르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계분야의 커리큘럼은 반도체를 구성하는 소자들을 설계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이용해 각각의 요소들이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반도체 구현 방법을 배웁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아날로그 집적회로 설계, 컴퓨터 구조, 디지털 시스템 설계 등의 수업이 개설돼 있습니다. 재료·소자·공정 분야는 반도체를 제작하는 데 가장 최적화된 방법을 찾는 분야로 시스템 반도체를 이루는 주요 구성 물질과 이를 이용한 시스템반도체의 기본이 되는 부품에 대해 배웁니다. 재료 분석론, 첨단 로직 소자, 반도체 공정 등의 수업이 있습니다. 시스템소프트웨어 분야의 교과목들은 사용자가 원하는 동작을 하드웨어가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반도체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예를 들어 운영체제 및 시스템 프로그래밍, 컴파일러 설계, 기계학습 개론 등의 수업이 마련돼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기존 학과와의 연계



FAQ

Q1 | 장학금이나 특전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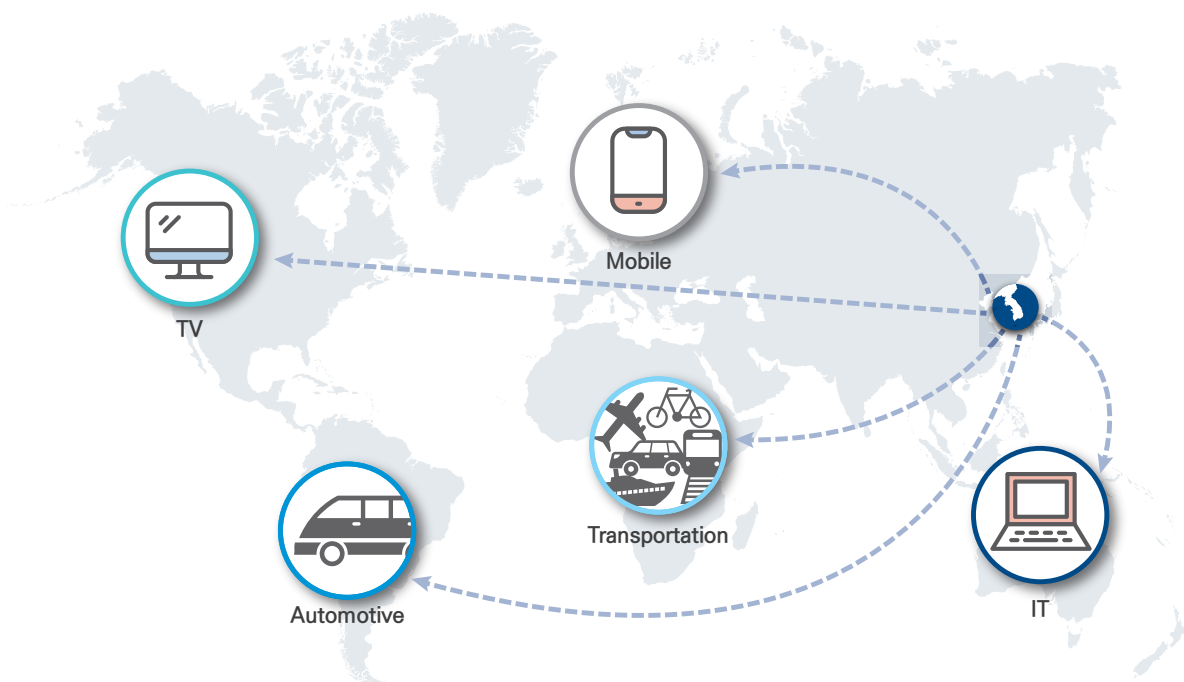
- A 장학금** 1~2학년 입학생 전원 등록금 및 기숙사비(1학년) 전액 지원
3~4학년 삼성전자 장학생 대상 등록금 전액 지원(2학년 2학기 재학 중 삼성전자 장학생 선발 채용 절차를 통해 장학생이 되는 경우 등록금 전액 지원. 단, 불합격 시 매 학기 재응시 가능)
- 연구 활동 지원** 국제적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해외 산업체 견학, 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
반도체 제작 실습 환경 제공 및 교내·외 연구성과 발표회 참가

Q2 | 시스템반도체공학과에서는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오면 좋을까요?

- A** 시스템반도체공학과에는 먼저 공학도의 기본자세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과 내에서도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무언가 만들어 보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세부 분야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시스템반도체를 알아가는 것에 내적 동기를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전자제품의 핵심인 반도체의 동작원리를 궁금해 하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시스템반도체를 꾸준히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과대학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육목표, 교육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시스템반도체공학과 홈페이지(<https://system.yonsei.ac.kr>)참조

계약학과 **공과대학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



우수한 교원과 교육 인프라를 갖춘 연세대학교는 미래 디스플레이 분야를 이끌어 갈 차세대 리더와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LG디스플레이와 협력하여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를 설립하였습니다.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는 디스플레이 소자, 공정, 재료, 회로, 설계, 광학 등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르는 다학제간 융합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LG디스플레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산업체 인턴십 및 현장 실습과 같은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주요 학습 내용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에서 주로 학습하는 학문은 크게 물리, 신소재, 전기전자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 분야에서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소재의 근간이 되는 기본 원리를 탐구합니다. 신소재 분야에서는 물리학에서 예측하고 계산된 기본 원리에 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합니다.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개발된 소재의 물성을 실질적으로 응용하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 논리 회로, 기초 회로 설계, 신호처리 등의 기본적인 학문을 공부합니다. 이 세 가지 기초 학문을 통해 융합과학적인 성격을 띠는 디스플레이 기술을 성공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 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특전

구분	내용
학비보조금 지원	• 등록금, 기숙사비 전액 지원 (1~2학년 대상) • LG디스플레이 장학생 대상 등록금 전액 지원 및 추가 학비 보조금 지원 (3~4학년 대상)
연구활동 지원	• 국제경쟁력을 함양하기 위한 해외 디스플레이 학술대회 참관 및 참가 지원 • 디스플레이 공정 실습 및 관련 회사 연수 지원
각종 행사 참석 지원	• 국내외 디스플레이 관련 학회 참석 지원 • LG디스플레이 사업장 투어 • LG디스플레이 현직 선배님들과 멘토링 • LG트윈스 야구관람 행사 지원
기타	• 과잠바 및 하키팀 비용 지원 • 시험기간 중 특별 간식 지원 • 학부생 전용공간 지원

장학금 및 특전



취업

- LG디스플레이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LG디스플레이 입사 보장



대학원 연계 진학(본교)

- 연세대학교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 대학원 연계 진학 가능
- 대학원 등록금 전액 및 상향된 학비보조금 등 산학장학생(LGenius) 혜택 제공

QnA

Q1 | 장학금과 관련된 자세한 금액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 A** 1~2학년 등록금 및 기숙사비(1학년) 전액 지원
(1학년 2학기부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충족 시 장학금 지급)
- 3~4학년 LG디스플레이 장학생 대상 등록금 전액 지원(2학년 2학기 재학 중 LG디스플레이 장학생 선발 채용 절차를 진행하며, 불합격 시 3학년 2학기에 재응시 가능)

Q2 |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 입학을 위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A** 디스플레이 기술은 다양한 학문과의 융합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다양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새로운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는 융합적 사고를 갖춘 학생들이 오면 좋겠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디스플레이 산업환경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도전정신,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의지를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자세와 역량을 갖춘 학생들이라면, 연세대학교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에서 성공적으로 학업을 수행하고, 나아가 미래를 설계할 글로벌 디스플레이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Q3 | 추가적인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A** 아래 학과 공식 홈페이지 및 소개 유튜브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 홈페이지: <https://dis.yonsei.ac.kr/>
-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 유튜브 소개 영상:
- ① https://youtu.be/L-NVV9Y8Bj4?si=1cMkMvRdD-_kvTbH
 - ② <https://youtu.be/Dnr-b6QpXws?si=cWo0LaHKe7WRwJXi>

IV

선배가 전하는 합격이야기



활동우수형
(사회학과/수학과)



국제형
(융합인문사회과학부/융합과학공학부)



Q1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국제형에 지원하기 위해
고등학교 3년동안 어떻게 준비를 했나요?

활동우수형 | 사회학과(백○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사회과학에 대한 흥미는 가지고 있었지만, 마땅한 진로나 목표 대학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오로지 내신 성적을 잘 받는 부분에만 몰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2학년 1학기에 다양

한 사회과학 학문 중 사회학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 스스로 돌아봤던 1학년 생기부에서는 관심 분야에 대한 열정과 적극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2학년 2학기부터는 내신 성적은 그대로 챙기면서 관심분야인 사회학에 대해 해보고 싶은 모든 활동들에 있어서 후회없이 도전해봤던 것 같아요. 사회과학 강연을 듣고 정치 사회학에 대한 궁금증을 바탕으로 교수님께 이메일을 통해 인터뷰도 진행하고 교요에서 공통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모아 교내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어요.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환경 사회학에 대해 자발적으로 소논문을 작성하고 전문가 검토를 받아 교육청 포럼에 참석하여 그에 대한 환경 정책까지 제언했던 경험이에요. 한 번 관심을 품은 분야에 대해서 그 갈증이 해소될 때까지 탐구하고 도전해봤던 그 경험이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3학년 때는 비로소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라는 구체적 목표를 품고 대입을 준비했어요. 1학기에는 내신과 생기부 뿐만 아니라 수능최저와 면접까지 준비해야 했던 부담이 제게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따라서 1학기는 수능준비를 하며 면접에 있어서는 각종 독서를 읽으며 대학 수학에 필요한 소양을 기르려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후 2학기에 내신의 부담을 덜고 담임 선생님 도움 아래 본격적으로 면접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연세대학교 입학처에서 최근 3년 기출을 다운받아 시간에 맞춰 면접 영상을 찍어 지속적으로 보며 피드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꿈에 그리던 활동우수형에 최종 합격을 받아내며 제 수험 생활은 마무리 되었어요!

활동우수형 | 수학과(박○태)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은, 제가 고등학교의 절반을 진로 없이 보내왔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지 못한 1학년과 2학년 1학기에는 진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교과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사실, 1학년 1학기 성적이 기대하는 만큼 잘 나오지 않아서 당황하고 방황했을 때도 있었는데, 아직 대학 입시에 들어가는 5학기 중 1학기만을 마친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 하자는 마음으로 학교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부터는, 수학과에 진학하겠다는 진로가 생기게 되었고, 이에 수학과에 맞는 연구 및 세특 작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엄밀하게 증명이 되어 있지 않거나 수능을 위해 편법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학기말 발표에서 이를 증명하거나 정확한 개념을 소개하면서 생활기록부 세부적 특기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수학과에 진학하려는 만큼 관련 교과 성적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수학 과목인 1학년 공통수학, 수학 I,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모두 1등급을 받아 내면서, 전공에 적합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학생임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국제형 | 융합인문사회과학부(장○)

사실 저는 국제형이란 전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등학교 1학년 말이 되어서야 알았기에 1학년 때의 생활에 대해서는 크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학년이나 3학년에 국제형을 들어가기 위해서 크게 준비하였다고 물으시면 그것도 아니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가 희망했던 전공(의외로 저는 국어국

문학과 지망생이었습니다.)을 위주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국제형에 맞추어 활동을 진행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복기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저도 원서 작성 시에 국제형을 지원해도 되나 고민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히려 제 이려했던 점이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께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자들은 자신의 지금까지의 생기부가 국제형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며 이미 낙담해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입학 사정관분께서 그러한 '전공 적합성'보다 더욱 높게 평가하는 측면은 오히려 '학업 충실도'인 것 같습니다. 즉, 각 교과목에서 성취해야 할 주요 학업 목표(일반적으로 교과목별 정규 학업 목표는 선생님께 부탁드리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를 정직하게 수행한다면, 오히려 그러한 점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수학이나 과학 같은 교과목의 세부 특기사항에 자신의 진로나 희망 전공을 억지로 옥여넣기보다는 각 교과목에서 순수하게 탐구한 활동을 넣어보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물론 국제형에 걸맞은 국제적인 활동을 넣는다고 해서 그것을 극구 반대하는 건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생기부나 교과목의 기본에 충실하여 활동을 작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듯합니다.

국제형 | 융합과학공학부(박○민)

1, 2학년 때에는 오로지 내신 성적에 집중하면서 공부했습니다. 특히 내가 원하는 분야와 관련된 과목이 있다면 더욱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방학 등 남은 시간에는 모의고사 공부 역시 계속했고, 수능 형식의 시험에 대한 감을 잃지 않는 것이 주요 목표였습니다. 또한, 생활기록부를 잘 채우기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안내하시는 활동들에 대해 집중해서 듣고,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은 활동들, 혹은 진로와 큰 연관이 없을지라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내가 어떤 활동에 참여하였고, 그 의의와 그로부터 배운 것은 무엇인지 확실한 메세지가 느껴지도록 되도록이면 통일성 있게 생활기록부를 채워 나갔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활기록부를 일관되게 채우는 것이 가장 힘들었으며, 그나마 희망 분야에 있어서 기초적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지식을 알고 있었기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3학년 때는 1학기 내신과 본격적인 수능 공부를 병행하였고, 이때 역시 생활기록부 활동에 신경 쓰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3학년 때에는 학교에서 대학 진학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활동을 많이 준비해 주었고, 사소해 보이는 활동까지도 진로와 연관시키고자 하였습니다. 3학년 2학기에 접어들고 나서는 생활기록부를 마무리하면서 수능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형이라 할지라도 수능 최저등급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해 온 공부에 대한 감을 잃지 않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였고, 지원한 전형의 최저만 딱 맞추는 것이 아닌 최대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Q2 합격한 전공과 관련하여 가장 의미있는 교내활동은 무엇이었나요?

활동우수형 | 사회학과(백○우)

저는 학생자치회가 제 전공과 관련된 가장 의미있었던 활동이라 생각해요! 학생자치회를 하며 교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문제들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과정 자체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한 활동을 거치며 친구들과의 협력과 소통 등 다양한 소양을 함양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교내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점점 그 흥미가 사회 전반의 문제까지 확장되게 되었고 그 원인을 다방면에서 해석하고 그 해결책을 도출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 결과 사회에 속해 있는 우리의 삶과 행동에 대한 학문인 사회학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심화 탐구 활동을 하는 측면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학생회가 가지는 수직적 권력구조와 학생들의 민주적 의사수렴이 불가능했던 학교 구조에 관심을 갖고 정치 사회학을 공부하게 되었으며 이의 기반으로 교내 수평적 민주주의 확산을 목표로 교내 실장 교학 협의체, 대의원회를 출범하여 1년간 의장으로 지내기도 했어요. 이런 학생자치회의 활동들이 저로 하여금 사회 구조로와 문제로 이어지는 흥미의 확장에 큰 기여를 하였고 리더십과 소통 그리고 협력과 같은 사회에 나아갈 때 지녀야 할 필수적 소양까지 기를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이 활동이 제 전공과 관련한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이라 생각해요!

활동우수형 | 수학과(박○태)

학생회장 활동, 동아리 활동 등도 무척 의미있는 활동이었지만, 저는 학교 교과 과정을 잘 이해하고 학문적으로 더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학생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수학I 과목에서는, 수열 단원에 연계하여 콜라츠 추측에 대해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보임에도 증명되지 않은 난제임에 공감하며, 오히려 제가 수학과에 진학하게 되는 관심의 일종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을 시그마로 표현하는 식을 증명해 가는 과정에서 지루하고 어려운 과정으로 느껴졌던 증명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학II 과목에서는, 「문제해결로 살펴본 수학사」라는 책을 읽고 수학에 대한 흥미를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잇값정리를 해석학을 통해 증명하는 과정을 보고, 수학과에 진학해서 해석학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적분 과목에서는, 당시 인터넷 강의 등으로 유행하게 된 폴리법인 근사에 대해 연구하고 발표했습니다. 테일러 급수와 매클로린 급수를 고등학교 수준에서 유도하면서, 학우들과 배운 것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구분구적법을 설명하며, 리만 합과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이는 앞

으로 수학을 공부하는 데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확률과 통계 과목에서는, 교과서에서는 유도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이항분포의 평균, 분산을 시그마의 성질과 조합의 이용, 미분을 이용한 증명과정으로 유도해냈습니다. 또한, 완전순열을 설명하는 과정을 발표하면서, 포함배제의 원리까지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수학에 대한 관심이 더 생기게 되었고, 수학과에 대한 진학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국제형 | 융합인문사회과학부(장○)

제가 합격한 전공이 국제형 중에서도 ‘융합’인문사회과학부(HASS)이다보니 여타 학문과의 융합적인 활동을 진행한 것이 아마 큰 도움을 주지 않았으나 추측해 봅니다. 이 말인즉슨,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과 같은 과목들을 개별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복합적인 측면에서도 바라보고, 그에 관해 융합적으로 학문을 탐구해 보시길 추천해 드리는 것입니다. 가령 저 같은 경우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경제 과목과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웠던 확률과 통계 과목을 융합하여 탐구한 전례가 있는데, 이렇게 문이과를 통합하여 활동을 진행하면 학부가 원하는 취지에 적절히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풀자면, 제가 당시 했던 활동이 국내외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경제 현상(가령 시장의 수요와 공급, 시장실패 혹은 정부실패 등)을 통계학적 방식에서 접근한 것이었는데, 이를 수치화 혹은 그래프화하는 일에 공이 좀 들었던 했어도 활동 성과의 측면에서는 타 교과 활동들보다도 더욱 알차고 독특한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방금 제가 말한 사례는 단순히 융합 학문의 한가지 사례일 뿐, 여러분이 배우는 교과목은 다양하고 이를 융합적으로 섞어내는 길은 더욱 무궁무진할 것이기에, 어떻게 그것들을 창의적이고 유기적으로 엮어낼지 한 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학교가 원하는 창의 융복합적인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현상을 단순히 한가지 시각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닌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함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국제형 | 융합과학공학부(박○민)

교내활동 중 자신이 원하는 주제를 교과서 내의 내용과 연관 지어 발표하는 활동이 가장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단순한 활동이지만, 이것만큼 개인적인 관심 분야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계기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 내의 내용과 연관 지어야 하다 보니 구체적인 조사 활동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몰랐던 새로운 지식을 조금씩 배우다 보면, 어느새 그 분야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진학을 희망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동기 대신, 이 기회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동기를 가지고 발표를 준비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이를 설명하기 위한 깊은 수준의 이해도를 가질 수

있다는 점 역시 느꼈습니다. 혹시나 자신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지만 재능이 없다 느껴서, 성적이 좋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희망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분야를 계속해서 파다 보면, 분명 길이 보일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과학보다는 언어적 영역에 더 좋은 결과를 얻다 보니 순간순간 과학도로서의 길을 포기해야 하나 싶었으나, 과학적 능력만큼이나 언어적 능력을 인정해 주는 국제대라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희망분야를 나아가는 데에 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Q3 선택과목을 두고 고민하는 수험생들(예비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활동우수형 | 사회학과(백○우)

저는 정치와 법, 사회문화, 경제, 사회문제탐구, 세계문제와 미래 사회, 국제정치 등 각종 사회과학 연계 교과목을 수강했어요. 이러한 선택의 배경에는 제 관심분야에 대한 갈증으로 해당 과목들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당시 일부 과목이 선택자 수가 적어 내신 성적을 받기 어려울 것 같아 고민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성적보다도 대학에서 관심분야를 공부할 때 기반이 되는 학문적 소양을 기르고 싶다는 일념 아래 고민 없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신청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제 경험을 기반으로 과목 선택을 망설이는 후배들에게 내가 원하는 과목, 나의 현재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과목에 도전하는 자세를 가지고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요. 현재의 나보다 발전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라면 어려운 과목, 소수 인원 수강 과목에도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여 노력하길 바랍니다!

활동우수형 | 수학과(박○태)

저는 2학년 선택 과목으로, 물리학I, 화학I, 생명과학I, 일본어I, 기하, 음악 감상과 비평, (공동교육과정) 공학 일반을 선택했습니다. 2학년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에는, 진로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로를 최대한 넓힐 수 있는, 나중에 발목을 잡지 않을 만한 과목들을 선택했습니다. 혹시라도 공과대학에 진학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와 화학을 선택했습니다. 3학년 선택 과목으로는, 언어와 매체, 미적분, 확률과 통계, 수학과제 탐구, 심화 영어I, 고전과 윤리, 물리학II, 화학II, 일본어II를 선택했습니다. 수학과에 진학하기를 마음 먹었기 때문에,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또한 수학과제 탐구를 수강하면서 수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보고자 했습니다. 나머지 과목은 관심 있는 내용들이 있어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과목과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 중 관심 있는 과목을 수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등학생 때, 물리학이 어려워 보여 수강하지 않으려 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과목마다 난이도 차는 그리 크지 않으며, 오히려 나중에 대학 진학을 할 때 관련 과목을 미이수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형 | 융합인문사회과학부(장○)

일단 제가 선택한 과목들을 나열해 드리자면, 화법과 작문(국어), 확률과 통계(수학), 경제 및 세계사(사회탐구)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인문계의 선택과목들로 볼 수 있으며, 현재의 자연계 교과목 선택 급증 사태에 정반대로 나아갔던 선택이긴 합니다. 사실, 각각의 선택과목들을 선택한 계기도 지금 생각하면 조금 황당하기도 합니다. 먼저 화법과 작문은 제가 취미로 글쓰는 것을 좋아하여 선택하였고, 확률과 통계는 학교에서 내신 수업으로 확률과 통계밖에 가르치지 않아서였습니다. 또한 경제와 세계사는 제가 단순히 해당 교과목에 대한 흥미로 선택한 교과목이었기에 제가 선택한 거의 모든 교과목은 성적이나 생기부를 기준으로 고르진 않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제가 이 선택과목들을 선택한 결과가 나쁘냐고 하시면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학문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했기에 공부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고, 이는 궁극적으로 높은 학업적 성취를 이루게 해준 시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학문적 호기심과 학업적 성취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방향으로 학문적 목표를 잡으시길 희망하는 바입니다.

국제형 | 융합과학공학부(박○민)

저는 국어 - 언어와 매체, 수학 - 미적분, 과학 - 물1/지1을 선택했습니다. 희망하는 분야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을 중시했기에 언어와 미적, 물리를 선택했고, 나머지 과학 중에서는 관심이 있었으며 성적을 준수하게 받을 수 있었던 지구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관심 있는 과목과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 중에 고르라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방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관심 분야와 관련된 과목을 고르는 것이 더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며, 설사 점수가 잘 나오지 않더라도 점수 받기 편한 과목을 골라 버린다면 그만큼 선택의 폭을 좁히게 됩니다. 저 역시 확률과 통계를 훨씬 점수를 잘 받곤 했으나, 이후 진학할 때를 고려하여 미적분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정말 특정 과목밖에 자신이 없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되도록 미래의 자신을 위해 당장 힘들더라도 관심 있고 선택지가 많은 과목을 고르기를 조언하고 싶습니다.

Q4 수능최저학력기준에 대한 부담은 없었나요? 이를 위해 어떻게 공부했나요?

활동우수형 | 사회학과(백○우)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 전형의 수능최저는 2합4로 내신과 생기부 그리고 면접까지 준비해야 했던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특히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2합 4라는 수능최저에 영어가 포함되지 않아 더욱 그 부담이 컸던 것 같아요.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저만의 공부법은 수능에 대한 감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특히나 고등학교 3학년이면 수능에서 출제되는 여러 과목들의 개념은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을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때 부터는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모든 과목 모의고사를 한 세트씩 풀며 수능 시험을 대하는 감각을 유지시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특정 과목만 골라 편식하지 않기예요. 수능은 무수한 변수들이 존재하기에 모든 과목들에 있어서 그 비중을 두고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한 틀린 문제들에 있어서는 “복기”를 활용했어요. 복기란 바둑에서, 한 번 두고 난 바둑의 판국을 비평하기 위하여 두었던 대로 다시 처음부터 놓아 보는 과정을 뜻해요. 수능 준비에 있어서도 그저 틀린 문제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기 전의 상태로 돌아갔다고 가정하고 어떻게 사고하고 문제에 접근했다면 문제를 적절하게 풀 수 있었을까 고민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하자면 활동우수형 전형은 내신과 생기부 그리고 면접에 수능최저까지 준비할 과정이 많은 전형이에요. 이에 따라 수능최저는 다른 활동들을 하면서 그 감각을 잃지 않도록 자주 풀세트를 풀어보기 더불어 오답을 정리할 때 복기 방식을 활용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 수능최저의 벽을 넘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활동우수형 | 수학과(박○태)

연세대학교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은 국/수/탐 중 2개 합 5등급 이내, 영어 3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는 타 대학교에 비해 어렵지 않은 기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시 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을 모두 준비했었기 때문에, 수능 공부 역시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수능 공부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국어 과목과 영어 과목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매일 아침과 점심에 공부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아 매일 공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물론, 매일 그 목표를 지키지는 않았으나, 매일 공부를 하면서 느는 것도 있었고, 감을 찾아가는 것도 느끼는 것이 인상깊었습니다. 수학과 과학탐구 과목에서는 수능과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통해 학습하는 것이 유효했습니다. 사실 문제도 풀어 봤으나, 기출 문제만큼 질이 좋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기출 문제와 EBS 문제를 풀어보면서

초심을 다졌습니다. 또,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수학 문제를 다 풀 즈음에 실수를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알고 나니까 실수가 줄었고, 수능 수학 영역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제형 | 융합인문사회과학부(장○)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역시 영어 1등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론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2024년도 수능에서 영어 1등급의 비율이 4%대였음을 고려해 본다면 영어는 절대 절대평가라고 만만히 볼 수 없는 과목입니다. 그 외에도 2합 5라는 추가적인 최저 학력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영어 1등급에 비해 그리 어려운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핵심인 영어 1등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단 저는 이를 위해 최대한 많이 기출문제들을 풀어보았습니다. 특히, 자이스토리 시리즈 중 모의고사들을 총망라한 문제집을 사서 주말마다 1~2개씩 모의시험을 풀어본 경험이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는 표시해 두었다가 후일 책을 다 보고 나면 다시 그 문제들 위주로 정리를 해주는 것 역시 필수였습니다. 또한 듣기 문제에 대해 대비를 해두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마 상위권 학생들일수록 듣기와 동시에 독해 지문을 푸는 정도가 높다고 알고 있는데, 이때 실수하는 빈도를 최대한 줄이셔야 합니다. 듣기 문제 자체가 그리 어렵지는 않겠지만, 요즘은 듣기 속도가 조금 빨라졌기도 했고 함정들도 간간히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백색소음(가령 반이나 카페 등에서)을 접해보면서 듣기 문제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지문에 대한 시간 분배를 적절히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각 문제는 최소 1분 30초에서 2분 30초 사이에 해결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며, 시간이 촉박할 시 쉬운 문제들(41번~45번 문제, 40번 문제, 도표 문제 등)을 먼저 풀어야 함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국제형 | 융합과학공학부(박○민)

먼저 목표하는 전형이 요구하는 최저학력기준을 확실히 했고, 그 중 가장 높은 등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맞추어서 공부했습니다. 모의고사를 꾸준히 잘 봐 왔더라도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수능이기에, 안전 또 안전을 중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신이 정말 자신이 있고, 꾸준한 스탠스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을 확실히 하여 해당 과목보다는 보다 약한 과목에 시간을 할애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수능이라고 해서 급격하게 문제가 변하거나 하지 않는 만큼, 모의고사에서 자신 있었던 과목은 수능에서 역시 순조로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강한 과목은 과감하게 투자를 줄여 감을 잃지 않는 선에서만 공부하고,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자

신이 약한 과목에 정말 많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특히나 수학이 정말 하는 만큼 느는 과목인 만큼, 충분히 투자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머지 과목에 있어서는 해당 과목을 잘하는 친구를 찾아 요령을 배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수능 구조상 결국 요령을 깨우친 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Q5 수험생활이 힘들 때마다 이겨내기 위해 노력한 본인의 팁은 무엇이었나요?

활동우수형 | 사회학과(백○우)

수험생활, 특히나 고등학교 3학년은 대학이라는 인생 목표가 달려있었던만큼 그 압박과 스트레스가 가장 심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수험 생활의 압박이나 스트레스로 지칠 때 하루 딱 날을 정하고 평소 하고 싶었던 것을 하며 폭 쉬었던 것 같아요. 그 하고싶은 것은 잠을 자는 것, 친구와 노는 것 무엇도 상관없어요. 그저 수험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참아왔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하루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하루를 통해 스트레스와 피로를 조절하고 다시 수험생활에 열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루에 조금씩 쉬는 시간을 정해두고 스트레스와 피로를 조절하려 시도했던 경험이 있는데 제 경우는 할 일이 남아있다는 생각에 쉬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시간을 보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평소에 최선을 다해 공부에 몰입하고 쉴 때는 폭 쉬자라는 생각으로 이 방법을 활용했고 실제 멘탈 관리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활동우수형 | 수학과(박○태)

일 년동안 마라톤과 같은 수험 생활을 달려나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하기 싫은 공부를 미루지 않기 위해서 습관으로 들이도록 노력했습니다. 국어와 영어 과목을 좋아하지 않아 그 두 과목은 아침과 점심에 학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공부하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에는 친구와 대화를 통해 고민을 해결하거나, 동네를 산책하는 식으로 해소를 했습니다. 그 시간이 낭비되는 것이 아닐까 걱정을 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함께 공부를 하는 것은 어쩌면 그 시간을 효율적이지 않게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국제형 | 융합인문사회과학부(장○)

저는 수험생활의 피로를 일반적으로 먹는 것으로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먹고 싶을 때 음식을 막 먹었던 것이 아닌 당일 해야 할 목표치를 이뤘다면 그에 대한 자기 보상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혹은 중요한 모의고사를 친 후에는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사서 먹었던 것이 동

기 부여의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대망의 수능 같은 경우, 수능 이후에 먹을 음식의 리스트를 짜놔서 그 버킷 리스트만 보며 시험을 준비했던 경험이 특히 동기 유발을 극적으로 증진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러한 경험에서 드리고 싶은 조언은, 만약 여러분이 수험생활의 피로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자신만의 보상 심리 체계를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조건 음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는 것도 좋고, 영화를 보러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적절히 조절했을 때, 여러분이 오히려 더 나은 방향으로 학업적 성취를 이룰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국제형 | 융합과학공학부(박○민)

끝이 없어 보이는 공부 앞에서 수험생은 쉽게 지치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번아웃이 오며, 과연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싶은 순간도 오게 됩니다. 허나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결국 언젠가 입시의 끝은 오며, 그 순간에는 이때까지 투자한 시간이 아깝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수험기간 동안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 이 생활이 끝난 후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때의 자신에게 미안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주된 생각이었습니다. 분명 아쉬운 순간은 있을 것이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 노력하는 것이 자신이 공부하는 원동력으로서 큰 기능을 할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6 면접준비는 어떻게 했고, 실제 면접은 어떠했나요?

활동우수형 | 사회학과(백○우)

저는 연세대학교 면접을 대비함에 있어서 크게 3학년 1학기는 독서, 2학기는 실전 위주로 준비했던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 면접은 타 대학들과 달리 제시문 면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글을 읽는 독해력과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배경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단기간이지만 사회학과와 관련된 추천도서를 읽으며 1학기를 보냈어요. 2학기에 들어서 담임 선생님의 도움 아래 본격적인 제시문 면접 준비를 했어요. 연세대학교 입학처의 3개년 기출 문제를 다운받아 실제 면접과 똑같은 형태로 영상을 촬영하고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며 피드백하고 해당 부분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 결과 실제 면접에서 준비 과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막힘없이 답변할 수 있었어요!

활동우수형 | 수학과(박○태)

저는 정시 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을 모두 준비했었기 때문에, 수능 공부 역시 준비하느라 면접에 많은 시간을 쏟지 못했습니다. 실

질적으로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수능 시험날과 면접 날 사이에 있는 하루 뿐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입학처에는 그 전까지 사용되었던 면접 기출문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연세대학교 면접의 방식을 익히고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했습니다. 또, 잘 답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과학 교과에 대한 이해가 중요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과학 교과서를 한 번씩 읽어보면서 수능 문제를 푸느라 놓친 개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면접 대기 시간에는 마음을 편히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긴장을 조금 풀기도 했고, 준비해간 간식을 먹으면서 긴장을 풀어나갔습니다. 마음을 겸허히 가지려고 한 이미지 트레이닝이 가장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면접장을 나오면서, 제대로 답하지 못한 생명과학 지문이 아쉬웠습니다. 생명과학 교과서를 읽으면서 놓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런 점이 아쉬웠습니다. 과학 교과서를 꼼꼼히 다시 읽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제형 | 융합인문사회과학부(장○)

연세대학교 국제형 면접의 독특한 특징은 면접 제시문 중에 영어 제시문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수능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면 이는 크게 고민거리가 아닐 것이라고 고려됩니다. 제시문에 있는 영어 지문은 수능 영어 지문보다 더 직관적이며, 어휘의 수준도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 면접을 준비할 때 영어 제시문이라고 하여 큰 부담가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연세대학교 면접의 특징은 비대면 면접입니다. 이는 코로나 시대 이후부터 시작된 면접으로 면접을 면접관이 보는 것이 아닌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녹화 면접을 본다는 뜻입니다. 이는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저 같은 경우 면접관이 없어서 긴장을 좀 풀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지만, 여러분들은 오히려 기존의 면접 방식과 달라 어색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최대한 녹화 면접과 비슷한 형식으로 면접을 준비하시길 제안드립니다. 가령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자신의 면접 방식을 녹화해 본다면, 눈의 시선 처리나 목소리 혹은 화법 등에서 많은 수정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면접을 끝내고 나서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자신의 면접 결과를 되뇌시는 것입니다. 면접이란 평가 활동의 특성상 후회가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기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면접 결과를 고대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으리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국제형 | 융합과학공학부(박○민)

1차 합격 소식을 듣고 나서, 면접을 보기까지는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도중에 수능이 끼어 있었기 때문

에, 실질적으로 주어진 시간은 일주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긴장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여 전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문제의 느낌을 파악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일부가 영어로 출제되는 비대면 녹화 면접이었기 때문에, 면접 대기 시간 동안 혹시나 단어가 발목을 붙잡지 않도록 영단어장을 훑어보았습니다. 면접장을 나오면서 든 생각은 좀 더 논리적으로 많은 말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으며, 긴장이 풀리고 나니 떠오르는 좋은 생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감각적으로 파악하고, 이 시간 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논리적으로 하는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Q7 면접 시 긴장하거나 당황했을 때 어떻게 해결했나요?

활동우수형 | 사회학과(백○우)

면접 하루 전까지도 긴장되는 느낌이 전혀 없었는데 면접장 입장 전 줄을 서면서 긴장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면접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리면서 기존 기출들을 돌아보려 했으나 긴장되는 마음에 도저히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그 긴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려 노력했던 것 같아요. 가령, “나 혼자만이 아닌 모두가 같이 긴장하고 있을 것이며 면접 지문이 어렵다면 다 같이 어려울 것이다” 같이 모두가 같은 상황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긴장을 풀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등학교 3학년 한 해 동안 꾸준히 연습하고 준비했던 그 과정과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만약 면접을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다면 본인이 면접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연습해 봤으면 좋겠어요. 면접의 결과를 떠나 그 최선을 다한 경험이 면접장에서 긴장을 풀어주고 자신감을 찾게 해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요!

활동우수형 | 수학과(박○태)

저는 고등학교를 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어했지만, 면접에서 실수를 많이 하여 불합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 면접을 어려워했던 기간이 오랜 기간 있었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면서 내가 최고대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연세대학교 면접을 보러 오면서 이 학교에 반드시 진학하겠다는 욕심이 더 생겼고, 이에 자신감이 더 생겨 긴장을 오히려 덜 하게 되었습니다.

국제형 | 융합인문사회과학부(장○)

만약 여러분께서 면접이 너무나도 긴장되신다면, 저는 크게 2가

지 해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첫째는 물리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소울 푸드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는 즉,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평안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저의 첫 면접 날(물론 제 첫 면접은 고려대 면접이긴 했습니다.) 아침에 너무 긴장되어 속이 안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아침밥으로 설령탕을 먹으니, 속이 편안해지며 긴장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이때 청심환이나 껌과 같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긴장 완화제를 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정신적인 방식으로 과거의 더 긴장했던 경험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가령 제가 보았던 국제형의 면접은 11/25에 진행하였기에, 이는 이미 수능(11/16)이라는 거대한 관문을 통과한 후에 벌어진 상대적으로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즉,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의 면접은 수능 쳤을 때보다는 낫지!” 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상대성의 원리를 이용하면 훨씬 쉽게 면접을 볼 수 있으리라 제안하는 바입니다. 옛말에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으니, 면접 또한 여러분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좌우되리라 생각합니다.

국제형 | 융합과학공학부(박○민)

저 역시 돌발적인 상황에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면접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문에 말을 하는 모든 순간, 내가 다음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었으며, 지금 하고 있는 말과 매끄럽게 잇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며 신중하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걸리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제를 풀고 준비하는 시간 동안 내가 전하고 싶은 의견을 명확하게 마음 속에 새기고, 이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말을 고르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8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국제형을 준비하는 예비 후배들(수험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응원의 한마디

활동우수형 | 사회학과(백○우)

이 글을 읽는 후배들은 비록 다양하겠지만, 다수가 연세대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꿈을 키워나가고 있을 친구들이라 생각해요! 지금 나아가는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지금하는 노력들이 반드시 헛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해요~ 이미 연세대학교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지금의 과정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꼭 연세대학교에서 후배님으로 만날 수 있길 바랄게요~

활동우수형 | 수학과(박○태)

연세대학교에 진학해보니, 너무 좋은 동기들과 선배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국제캠퍼스 생활을 하면서 과 동기들과 꿈만 같은 학교 생활을 하고 있고, 좋은 선배들이 적응을 도와주면서 학교에 더욱 애착을 가지며 살고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연세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을 후배로 만나게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연세대학교 진학을 응원합니다!

국제형 | 융합인문사회과학부(장○)

연세대학교 국제형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12년의 학창 생활을 달려왔고, 달려오고, 달려갈 여러분의 미래가 앞으로도 더욱 화창하기를 소망한다는 말부터 전해드립니다. 아마 지금의 수험생활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리란 것은 저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분의 오랜 노력은 결국 빛을 발할 것이며,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대학 합격’이라는 성취를 꼭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대학에서도 공부하고 시험을 치는 행위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고등학교 때만큼 뻥뻥하고 지루하진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히려 대학 생활의 자유와 낭만을 만끽하며 즐거운 청년의 삶을 보내실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대학에 당당히 합격해 이러한 즐거움을 같이 누릴 수 있기를 간곡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형 | 융합과학공학부(박○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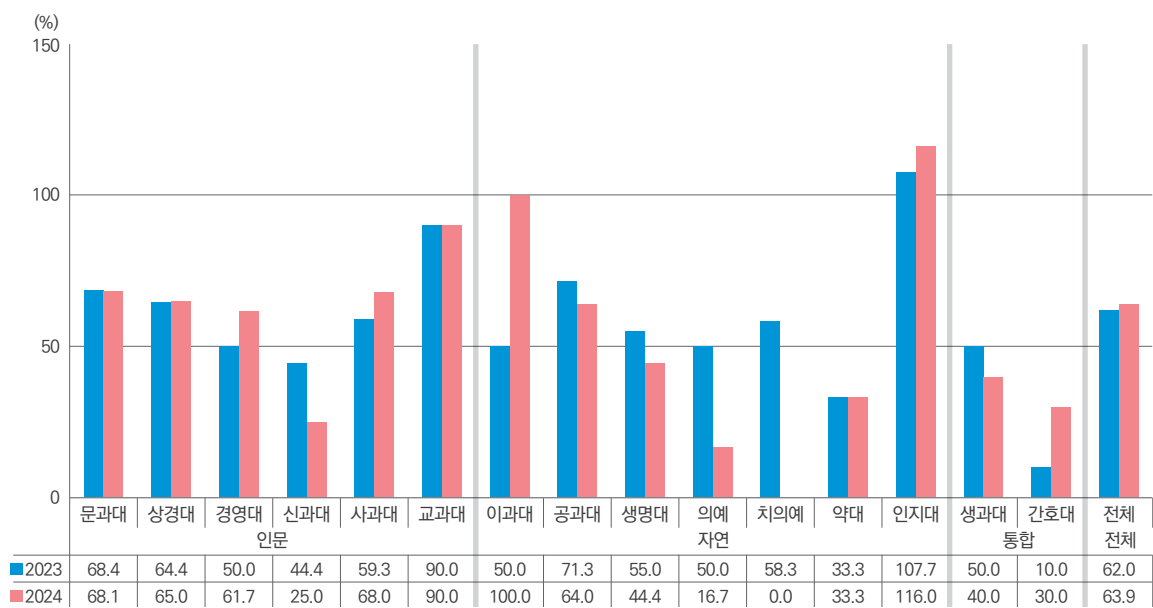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이것이 첫 수험생활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막연한 걱정이 계속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누구도 100% 자신감을 가지고 대학 진학을 준비하진 못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편하게 수험생활을 보내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 역시 수두룩합니다. 결국 그 차이는 마인드와 성실성의 차이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목표 없이 막연하게 공부만 하거나,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수험에 임하는 친구들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내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를 좀 더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학교 생활에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잘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고, 이를 잘 활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후회를 안고 살기엔 인생은 너무 짧다.’ 여러분도 후회 없는 수험 생활을 보내기 위해, 당장의 고난을 이겨내고 마지막 정상에 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마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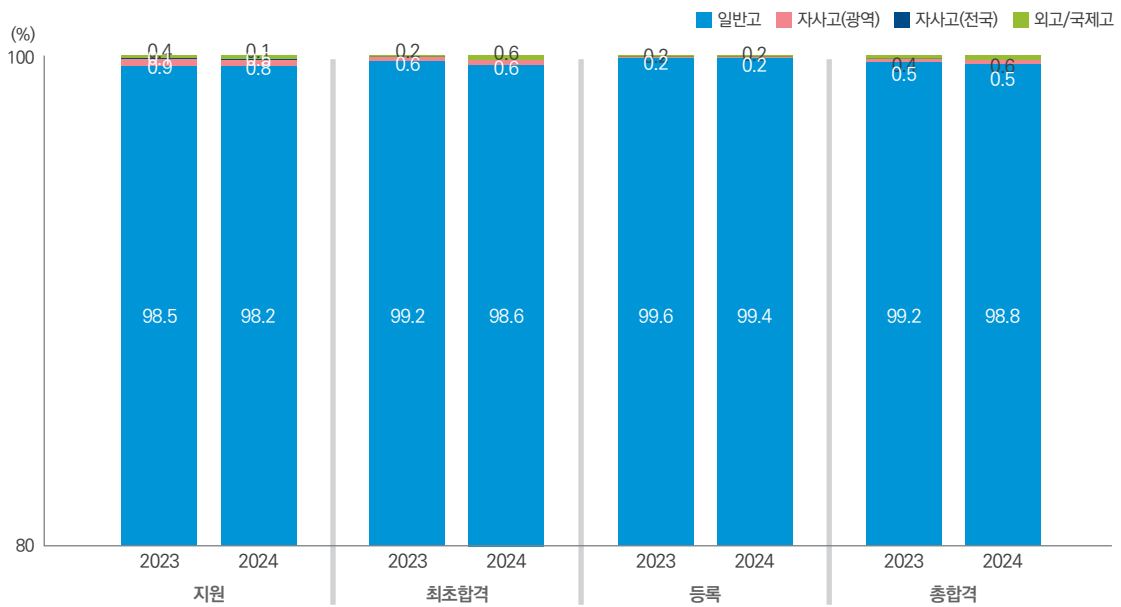
학생부종합전형 결과

학생부교과전형[추천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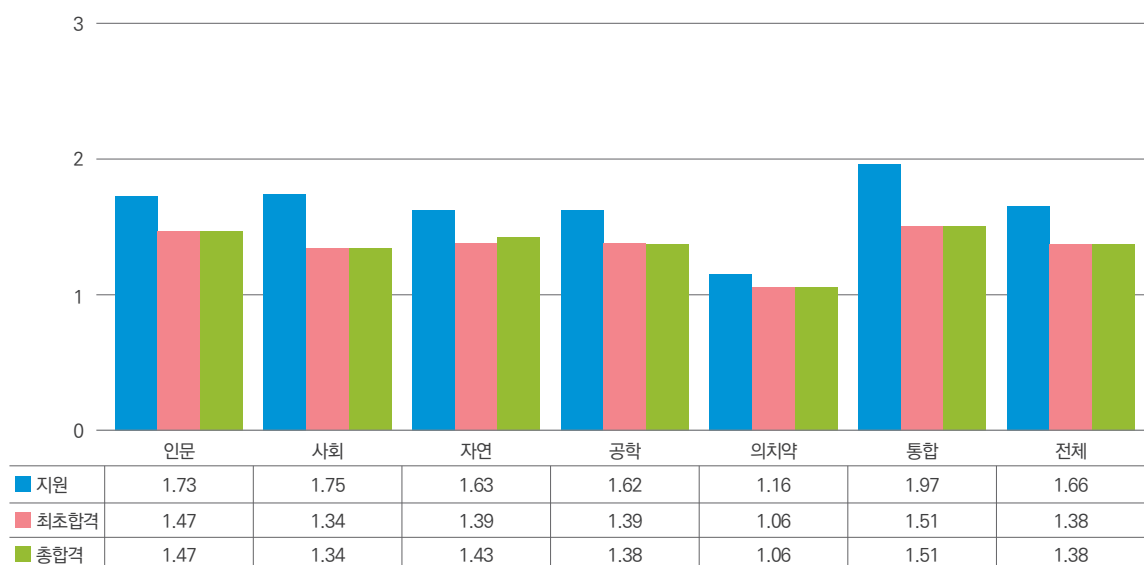
1. 모집인원 대비 추가합격률



2. 고교유형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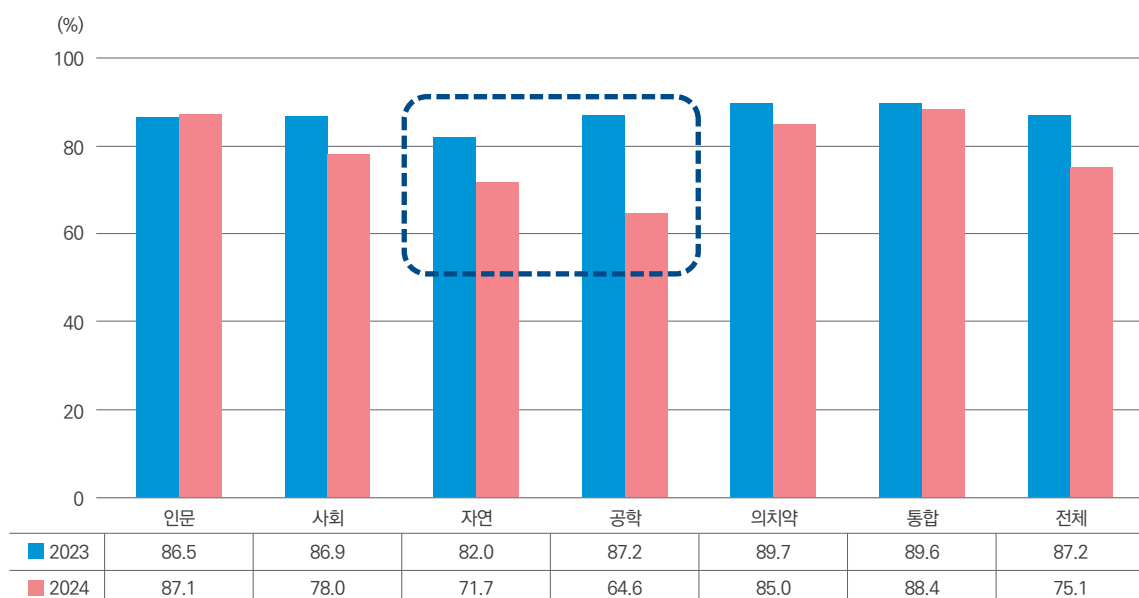


3. 2024학년도 교과평균 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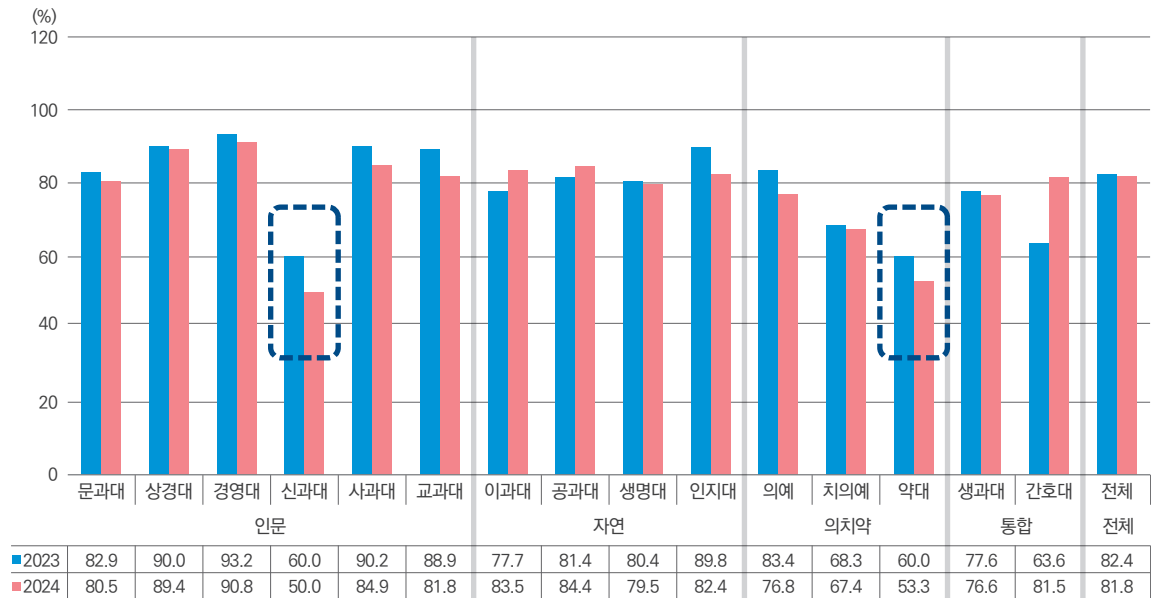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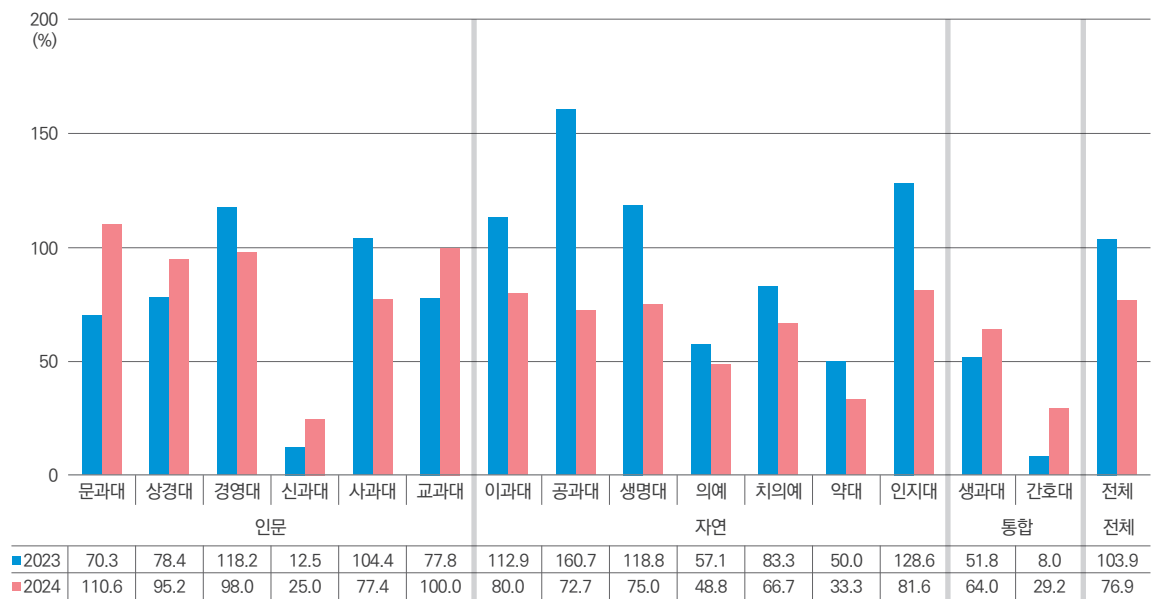
1. 면접 응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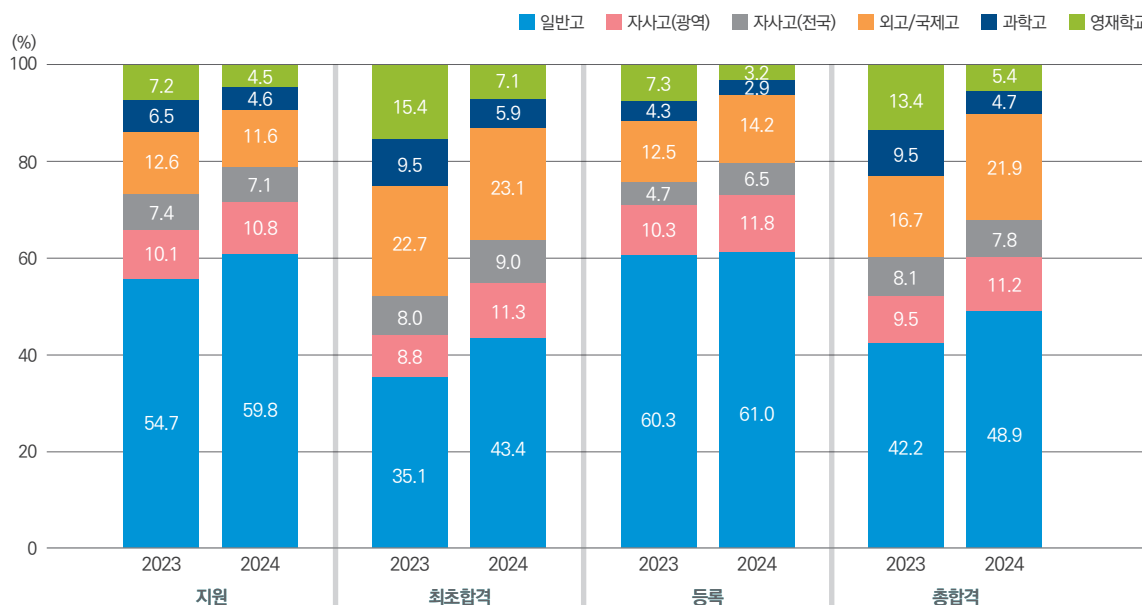
2.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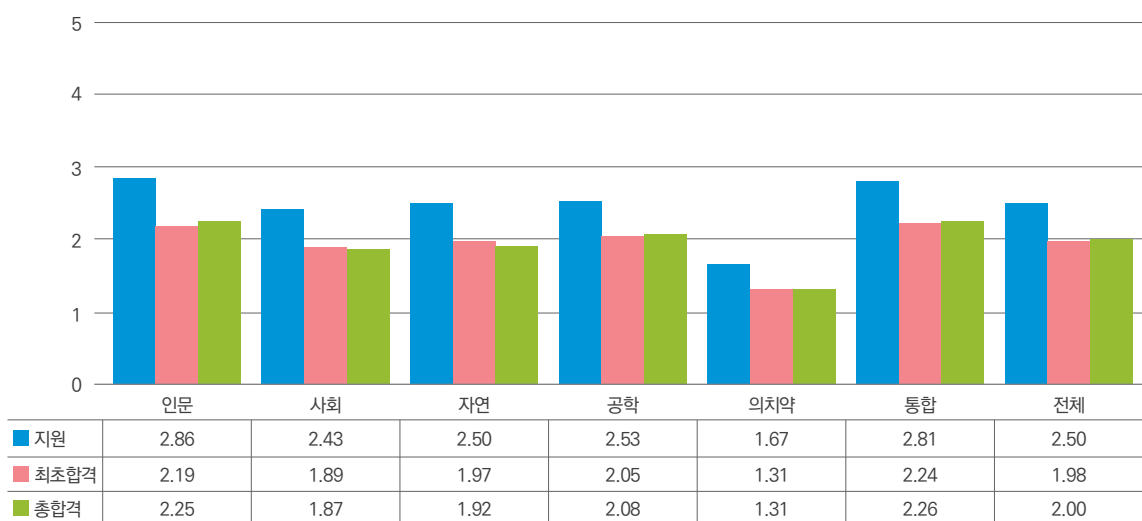
3. 모집인원 대비 추가합격률



4. 고교유형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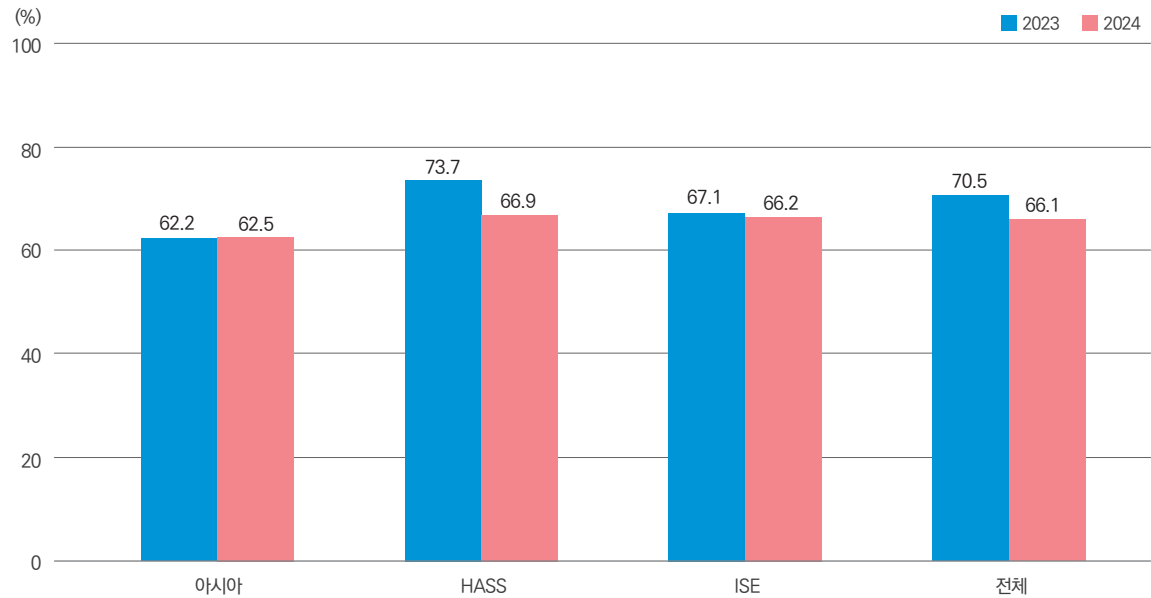


5. 2024학년도 교과평균 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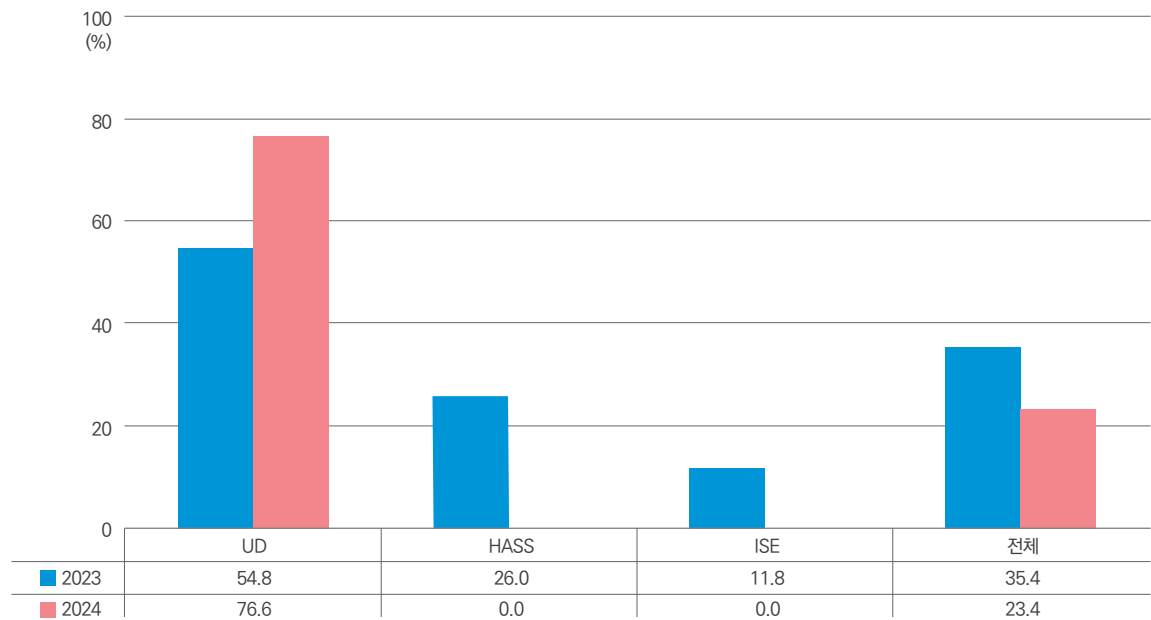


학생부종합전형[국제형] / 특기자전형[국제인재]

1.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률 : 국제형(국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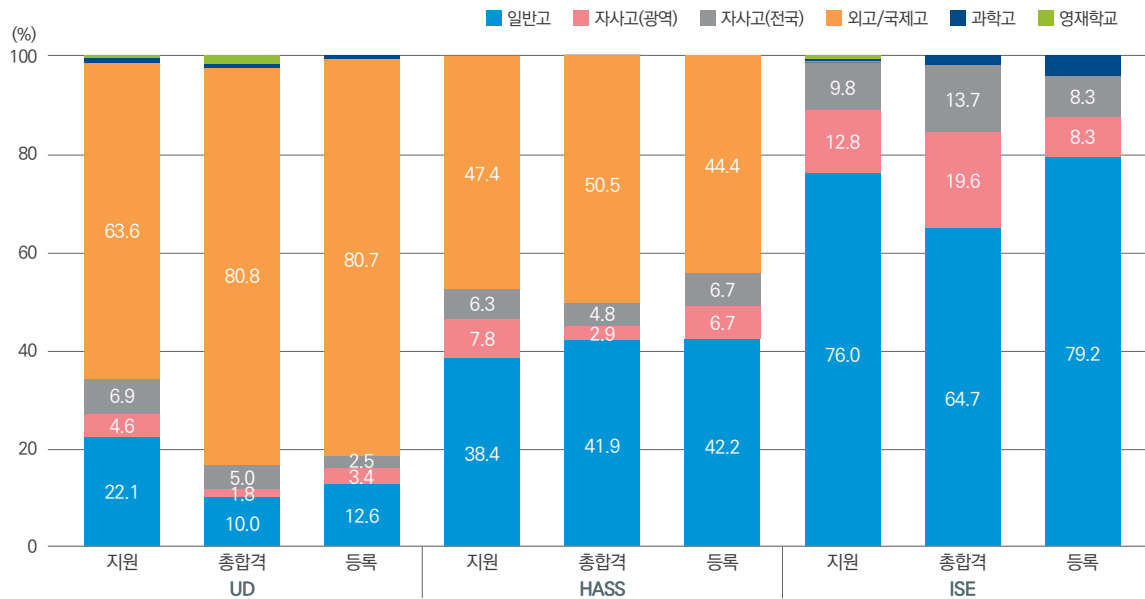


2. 모집인원 대비 추가합격률



※ 24학년도의 경우 수능 최저기준 충족자 미달로 HASS/ISE 결원보충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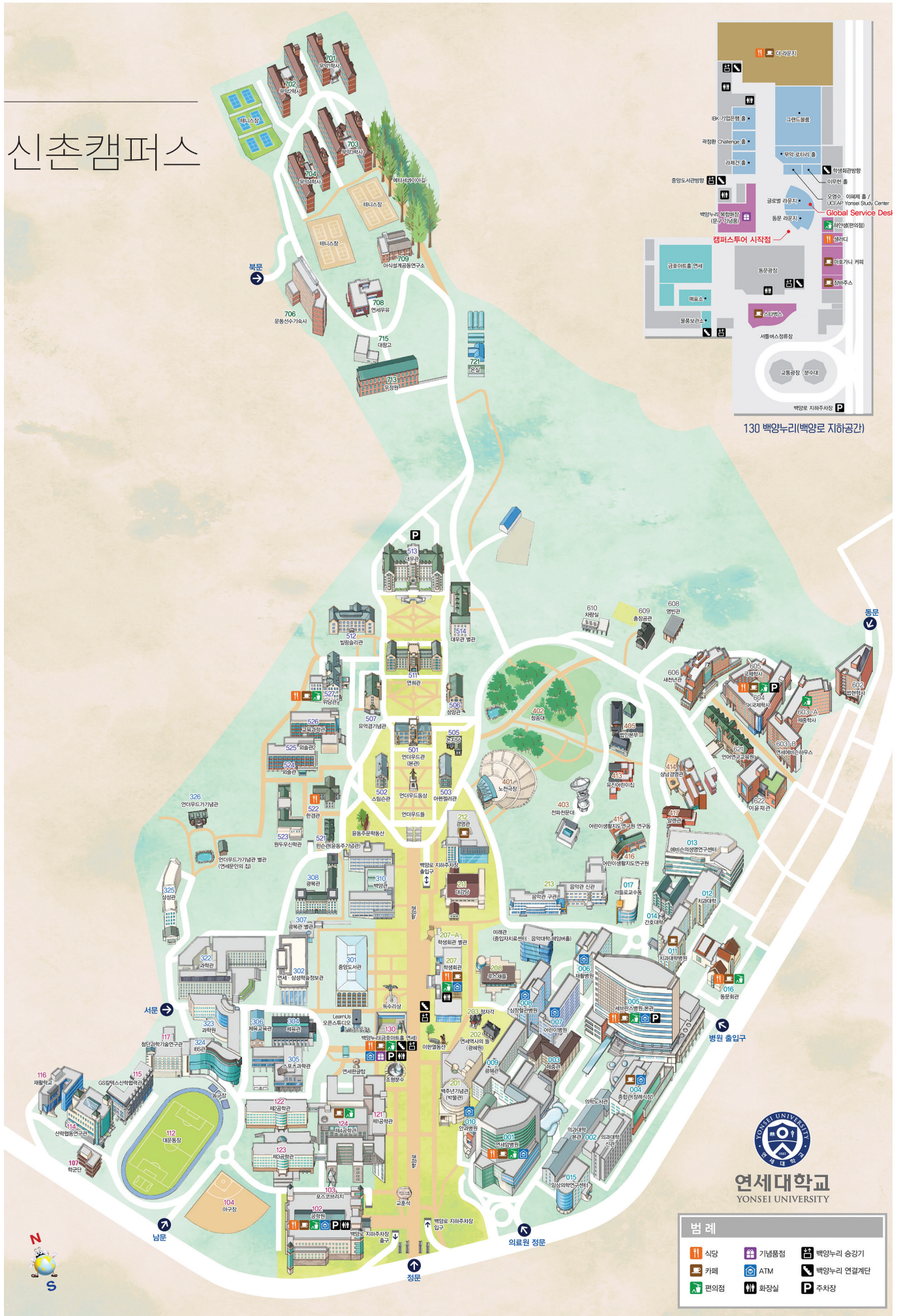
3. 고교유형별 지원 현황



4. 2024학년도 교과평균 등급



신촌캠퍼스



국제캠퍼스



408 송도학사 G
407 송도학사 F
405 송도학사 D
406 송도학사 E
402 진리관 B
401 진리관 A

101 언더우드기념도서관

306 송도학사 B
307 송도학사 C
305 송도학사 A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안내서

연세대학교 대표전화 | 1599-1885

서울캠퍼스 |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입 학 처 | 02)2123-4131

<http://admission.yonsei.ac.kr>



입학처 홈페이지



입학처 유튜브



입학처 인스타그램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연세대학교 대표전화 1599-1885 <http://admission.yonsei.ac.kr>

서울캠퍼스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입학처 02)2123-4131